

경기도 김동연, 가나가와현 지사에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지방정부 간 협력은 확대돼야”

김동연 지사, 17일 일본 가나가와현 방문, 구로이와 유지 지사와 면담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로이와 유지(Kuroiwa Yuji)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와 경기 청년사다리프로그램, 헬스케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현 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가나가와현청에서 구로이와 유지 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모든 산업을 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다. 가나가와현도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돈독하게 협력하고 싶다”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해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방정부 간 협력과 인적·문화교류, 사람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배움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양 지역 대학 간의 교류와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독립야구단의 친선경기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로이와 지사는 김 지사에게 미병(未病)과 관련해 MOU를 제안했고, 김 지사는 흔쾌히 동의했다.

김 지사는 “일본에 오기 전에 미국에 다녀오는 길인데 반도체나 첨단산업에 있어 4조 넘는 투자유치를 했고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다. 또 가나가와현에 있는 2개 기업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나가와현 기업들과 함께 투자 확대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효과를 내면 좋겠다”라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경제, 산업, 투자, 무역, 문화,

청년 교류, 스포츠, 바이오헬스 등 모든 부분에서 협력을 확대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로이와 지사는 이에 적극 동의하며 본인이 주창한 ‘미병(未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초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했다. 미병은 건강과 질병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병이 되진 않았지만 되고 있는 상태, 병이 없는 데도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로 가나가와현은 미병 상태에 있는 고령층의 식습관, 운동, 사회참여를 관리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최첨단 의료와 최신기술을 융합한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로이와 지사의 설명을 들은 김 지사는 “건강한 것과 아픈 것 사이에 대한 미병을 둔 것은 정말 좋은 착상 같고 한국도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가나가와현은 1990년 경기도가 아시아에서 첫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로, 한일관계 악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 지역은 지자체 간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며 오랜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다. 자매결연 이후 올해까지 경기도는 10명, 가나가와현은 9명의 공무원을 상호 파견했으며, 올해 4월부터 가나가와현 공무원 1명이 경기도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또 경기도 예술단 파견, 한중일 3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등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 ‘한중일 3지역(도·현·랴오닝성) 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나가와현은 도쿄에 이어 인구(923만 명) 2위 지역으로 일본 경제의 중심지다. 석유, 전기제품, 화학제품,



▲ 김동연 경기도지사,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 면담

중화학공업 등이 발달했으며 해상·육상·항공 등 교통중심지로 지리·경제적으로 경기도와 비슷한 점이 많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재일민단 가나가와현지본부 임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순재 재일민단 가나가와현지부 단장을 비롯해 임원들을 만나 “최근 한일 관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교포분들이 지내기 어렵진지 모르겠다.

그동안 민단에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 힘껏 돕겠다”라며 “정치 관계를 떠나 문화·인적교류와 민간교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경기도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단 측도 “한일관계가 안 좋으면 교포들이 어려워진다. 정치와 민간교류는 달리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와의 더 깊은 우호 관계를 희망했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민단 가나가

와현지부와 민간 우호 증진과 도 홍보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일본에서 매년 8월 개최되는 광복절 기념식과 10월 한일시민교류마당(코리아마당)에 경기도예술단을 꾸준히 파견했다. 앞서 경기도는 1994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있는 미쓰이 케공원에 건축비 20억 원을 들여 ‘코리아공원’을 조성했으며, 이곳에서 매년 10월 열리는 축제 ‘코리아마당’은 이틀간 방문객이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며 한국문화를 주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있다. 또 경기도와 민단 가나가와현지부는 재일동포 3세, 4세 어린이들이 모국방문 시 전통문화 체험과 홈스테이 가정 연결 등 재일동포들에게 전통문화 전파와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에 김 지사도 재일민단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재일동포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혜영기자

전남도 김영록 지사, “곡성, 근교형 내륙관광 중심지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곡성군을 근교형 내륙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곡성군 반다비체 육센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호남고속도로 연결망 확충,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 활성화, 살기 좋은 도시 정주 여건 개선, 골목상권 강화, 지역 특산물 판매 지원, 대항강 도림사 관광자원화, 청정자일·축제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 곡성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곡성군민과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에는 이상철 곡성군수, 진호건 전남도의원,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지역인사, 군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철 군수는 환영사에서 “김영록 지사의 노력과 열정 덕에 수서발 SRT가 오는 9월부터 전라선을 지나가면서 구례와 순천은 물론 곡성도 더 많은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전남의 기회는 곧 곡성의 기회고, 곡성의 번영은 전남의 번영으로 이어진다. 도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힘치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재정지원이 필요한 ‘옥과향교~옥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해당 구역의 통행량이 많아짐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옥과향교~옥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33억 원을 투입해 길이 339m, 폭 6m의 도로 개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곡성군은 현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17억 원의 예산으로는 한계에 달해 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도비 8억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시군 현안사업 예산으로 5억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며 “부족사업 3억 원에 대해서는 전라도에서 따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곡성 주민들도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오남군 오산면 이장단은 오산면에 위치한 옥과천이 장마철 상습 침수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들어 하천정비사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현재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옥과천 상류구간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건의한 구간까지 연장해 하천 정비가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수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대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 곡성 이전을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이 발표돼야 이전기관, 임직 등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한 곡성의 강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한국환경공단 유치 이후에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군민들은 ▲오산면 옥과천 하천정비사업 ▲곡성군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지원 ▲자립가능한 스마트팜 지원정책 확대 ▲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고, 온라인·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해명기자

제25회 2023

함평 나비 대축제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
뚜둑,뚜둑 나비야 일어나! 봄이야!

4. 28. (금) - 5. 07. (일)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함평군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교육청, ex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전라남도교육청, KRAIL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국민의힘과 '협력' 다짐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문...양 교섭단체 우호 협력 간담회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1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양 교섭단체의 교류 협력을 다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박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장, 안계일(성남7) 안전행정위원장, 김재훈(안양4)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 및 상임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최병준 대표의원 등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우호 협력 간담회'를 열고, 교섭단체 간 정책공유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의 경기도의회 방문으로 이뤄진 이번 협력 간담

회는 광역의회 교섭단체 활동 우수 사례 파악 및 정책공유를 통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간 연대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도의회 교섭단체는 이 자리에서 각 교섭단체 핵심 정책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의회별 정책지원관 운영 방향, 광역의회 교류를 위한 협의체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최첨단 복합문화공간인 도의회 '경기마루'와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를 기반으로 경북도의회 국민의힘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선도적인 정책·입법 활동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

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박미숙 대표 의원은 "지방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교류를 이어가며 정책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두 교섭단체가 계속 교류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확대와 같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정책들에 경북도의회도 응원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대표의원도 "상호 교류하면서 공동 현안에 서로 노력하고 해결해나가는 좋은 자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며 "17개 광역의회 국민의힘 광역의원들이 한뜻이 된다면 정부 동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조혜영/기자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5차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제5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위 부위원장, 김태수·이병윤·서호연 권역부대표, 고광민 운영부대표, 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대외협력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배석했다.

교육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23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안', '서울시교육청 노조사무소 조직현황',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외교부 답변 회신 경과', '학교 마약 예방교육 추진 계획', '중장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등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서울시교육청 노조사무소 비용의 방안을 지원을 중단하고, 임차료의 단계적 정리와 유휴공간을 우선 활용하는 재배치 계획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교조)를 포함해 교원단체·공무원단체·공무직단체 등 총 11개 노동조합에 사무소 임차료(보증금과 월세 등)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3월 현재 시점으로, 노조사무소에 보증금 35억3천만원과 한 해 1억6천3백만원 가량의 월세가 시민의 세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기준 없이 과다 산정되고 있는 노조사무소 비용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단은 각 노조사무소 계약 만료 기간까지 단계적으로 임차료를 정리하겠다는 교육청 기조를 확인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교육청 유휴부지의 우선 활용과 2025년 청사 이전으로 남겨지는 구청사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생 수가 줄어 폐교학교가 늘어나면서도, 특정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학교 과밀이 심화되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의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통폐합, 재배치 등 유연한 대응으로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학교 운영의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최근 마약범죄가 학생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램과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방효과를 고려해 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UN이 보내온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서울시의회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답변서를 보내 논란이 됐던 사안의 후속조치가 보고됐다.

원내대표단은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취지와 의회심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다분히 편향적인 내용의 답변서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외교부에 송부된 것에 대해 교육청의 철저한 반성과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외교부에 송부된 답변서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호정 원내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교육청의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명확한 예산기준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서울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서울학교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 교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영양 산나물축제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기간 5월 11일(목)~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YFTC 영양축제·관광재단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사회 부:내선 (113) 경 계 부:내선 (114) 스포츠부:내선 (115)

문 화 부:내선 (116) 부 등 선 부:내선 (117)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지 방 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더 가깝고 더 빠른 SNS 의회 구축

SNS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추가 오픈하며 다양한 콘텐츠 제공

광주광역시의회는 4월 19일, 공식 SNS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추가 오픈하며 의정활동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생생하게 공유하는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9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정책토론회 생중계, 의정뉴스, 의정스캐치 등 영상콘텐츠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을 추가 개설하고 콘텐츠도 다양화하면서 '손 안의 의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신규채널 오픈을 맞아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의회소개' 및 '의원소개' 영상, '시민의 의정 참여제도 안내'를 담은 카드뉴스 등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3개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서비스한다.

또한 광주 특색조례(조례소개), 발로 뛰는 의회(현장방문), 전지적 의원시점(의원회소개), 열공하는 의원(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SNS채널 추가 개설을 기념하여 이벤트(4.19.~4.26.)도 진행한다. SNS 3개 채널 중 2개 이상 팔로우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참여자 중 9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무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손안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SNS콘텐츠를 지속 생산하여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무안군의회, 함평군의회와 교류 간담회 개최

무안·함평 간 교류 협력으로 상생발전 모색



무안군의회는 지난 17일 함평군의회와 교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무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등 35여 명이 참석했으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두 의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무안·함평 간 두 지역 경계에 있는 무안읍, 현경면, 몽탄면의 농경지에 지역개발 사업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실 등 무안군의회 시설을 차례로 견학하며 의정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정 활동을 비교 시찰했다.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은 "앞으로 무안·함평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으로 지역 현안 문제와 의정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하여 상생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사회 부:내선 (113) 경 계 부:내선 (114) 스포츠부:내선 (115)

문 화 부:내선 (116) 부 등 선 부:내선 (117)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지 방 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케이컬처 체험프로그램 가동...관광한류 매력 알린다

'서울페스타 2023'기간 동안 외국인관광객 참여 한류 체험프로그램 특별운영

서울시는 관광 메가 이벤트 '서울페스타 2023'(4.30.~5.7.)을 시작으로 한류 중심지 서울의 매력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한류체험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류체험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유행 전 1세대 한류 열풍이 불었던 중국, 일본, 동남아를 비롯해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미까지 68개국 4천여 명이 신청한 서울특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이다.

3년 만에 재개하는 '한류 체험프로그램'은 K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서울을 찾은 다양한 연령대의 한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중문화부터 서울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로컬콘텐츠까지 K컬처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테마를 기획하고, 차별화된 서울만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한류를 대표하는 기업 및 공간들과 협업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대중문화 주제의 ▲K뷰티 한류스타 메이크업 ▲K팝 댄스 클래스 ▲K

엔터테인먼트 도슨트투어 3개와 한국 전통 식문화 체험할 수 있는 ▲K각테일 ▲K푸드 쿠킹클래스 ▲김치박물관 투어 3개를 합쳐 총 6개 테마가 운영된다.

협업에는 현대백화점, YGX아카데미, SM엔터테인먼트, CJ더키친,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월드클래스코리아 등이 참여한다.

5월 1일부터 '서울페스타 2023'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각 수업은 4월 19일 서울관광 누리집 '비짓서울'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체류 기간, 참여동기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 현대시리아울렛 동대문에서 진행되는 'K뷰티 메이크업 클래스'는 한류스타 스타일을 담당하는 알루 이승연 부원장이 무대부터 여배우 일상 메이크업까지 최신 트렌드와 노하우를 제공한다.

5월 2일 'K팝 댄스 클래스'는 블랙핑크 대표곡 포인트 안무 수업과 릴

스 영상 제작까지, YGX 아카데미 연습공간에서 손수빈 안무가에게 직접 훈련받을 수 있다.

5월 3일 'K각테일 클래스'는 전통주 및 지속가능한 식재료를 주제로 월드클래스코리아 임병진, 김도형 바텐더가 참여한다. 서울미식 100선 및 Asia's 50 Best Bars 선정된 '바참', '제스트'에서 진행된다.

5월 4일 'K엔터테인먼트 도슨트투어'는 글로벌 케이팝 열풍을 일으킨 SM엔터테인먼트의 레코딩 스튜디오, A&R 센터, 콘서트 스튜디오 등을 도슨트 설명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5월 5일 'K푸드 쿠킹클래스'는 인기 예능프로그램 속 분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맛보는 요리 수업이다. 쿠킹 스튜디오 'CJ더키친' 소속 전문 셰프의 특별한 레시피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5월 6일 'K컬처 뮤지엄김치간 투어'는 한국의 발효문화를 알아보는 박물관 관람과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는 체험까지 가능하며

수업에서 만든 나만의 김치를 가져갈 수도 있다.

'서울페스타 2023' 특별프로그램 종료 후 상시프로그램으로 재정비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한류 대표명소 '하이커 그라운드'에서는 케이팝 팬들을 위한 전시를 진행한다. 5월 2일부터 7일까지 글로벌 팬덤 미디어 플랫폼 '스타플레이'와 함께하는 '서울 한류 그라운드' 이벤트는 ▲서울한류 여행존 ▲한류 아티스트 투표존 ▲미디어존 ▲포토존 등 내외국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람형 프로그램과 방문자 참여형 이벤트로 구성됐다.

여행존에서는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담긴 '서울 한류여행 안내서'와 M.V.P 테마 코스 여행 정보를 안내한다. 투표존, 미디어존, 포토존은 케이팝 팬들이 만든 영상과 사진을 감상하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투표하는 공간이다. 외국인 방문객 한정으로 한글 이름 열쇠고리 만

들기(1일 50명)와 방문 인증 소셜미디어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 페스타 기간 대한항공과 함께 개별관광객 대상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해외 출발 6개국 31개 노선 탑승 방안 관광객들에게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대한항공 현지 접속 외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5월 1일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탑승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영화, 케이팝 등 K콘텐츠에 매료돼 서울을 방문하는 한류 관광객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라며 "한류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민간 기업과 함께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한류관광의 저변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금천구,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고등급(SA)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최고등급(SA) 선정

금천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 소통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실천본부는 금천구가 총 63건의 공약 중 56건의 공약을 '임기 내' 추진하고, 나머지 7건의 공약도 추진 계획에 맞춰 '임기 후' 완료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천구는 공약 이행과 관련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공약실천계획서의 확정 전 '주민배심원' 제도를 통해 주민의 뜻에 따라 공약실천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정보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열린 구청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약은 주민과 맺은 계약과 다름없기에 공약을 잘 지키려면 실천계획서 작성부

터 내실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운 계획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서울 중구, 마을축제 활성화에 6천5백만원 투입

올 한해 서울 도심에 다채로운 마을축제가 펼쳐질 전망이다.

중구는 지난 11일 '중구 지역축제 추진위원회 심의'를 열고 7개 마을 축제에 총 6천 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매년 주민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마을축제를 선정해 행사를 보조하고 있다.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올해 선정된 축제는 ▲회현동 은행나무축제 ▲신당5동 백학축제 ▲동화동 가을동화축제 ▲황학동 회화나무축제 ▲중림동 유유자적 중림만리 축제 ▲필동 한복축제 ▲신당동 내꿈동 페스티벌이다. 모두 올해 하반기 6~10월 중에 개최된다.

회현동 축제는 526년 수령의 은행나무를 소재로 한 축제다. 과거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리며 은행나무에 제사를 지내던 전통을 축제로 발전시켜 11년째 있고 있다. 회현동 축제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며, 은행나무 소원 걸기, 은행잎 공예, 회현옛길 완주 등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올해로서 20회를 맞는 신당5동 백



학축제는 선정된 축제 중 가장 역사가 길다. '백학'은 예로부터 이 지역에 소나무가 울창해 많은 학이 날아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는 10월 다산어린이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지역 상인회·복지관·종교단체·주민 동아리 등이 합심해 공연, 전시, 체험, 플리마켓 등을 연다.

중림동 유유자적 중림만리는 약현성당, 손기정 기념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등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한 지역 특성을 살렸다. 이들이

있는 도보탐방코스과 중림동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는 사진 공모전, 중림동을 빛낸 위인 역할극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축제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조선수도 한양이 자리했던 600년 역사문화 자원이 집적된 곳"이라며 "중구의 문화·관광 잠재력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과 구청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합동점검

17일 청소년지도위원회·용인동부경찰서·청소년범죄예방위 등 150명·PC방, 유흥가 돌며 캠페인



▲기흥구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17일 기흥역과 기흥구청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청소년지도위원회협의회(위원장 이기쁨)는 지난 17일 기흥역과 기흥구청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창호 기흥구청장, 판내 15개 동 청소년지도위원, 용인동부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기흥위원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개 조로 나눠 기흥구청과 기흥역 일대 상업지구 등을 돌며 PC방, 노래방, 주류 판매음식점 등을 방문해 청소년 대상의 주류·담배 판매 행위,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고용·출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된 유인물 등을 배포하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내용의 캠페인도 벌였다.

이기쁨 청소년지도위원회장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유해업소 등을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시흥시, 전국 최초 '청소년과 함께' ESG경영 공동 선포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이 지난 15일 시흥비즈니스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전국 최초로 참여자지구 청소년 130여 명과 함께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경영 추진을 공동으로 선포했다.

ESG는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비재무적 기업성과지표를 뜻한다. 환경 보호, 사회적 가치 실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세 가지 목표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칭한다.

시흥시청소년재단은 ESG경영 선포를 통해 사회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함께하는 ESG 경영을 표방해 시흥시청소년재단만의 차별화된 ESG경영을 추진하고자 공동선언을 마련했다.

이날 선포한 ESG경영 공동선언문에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적 가치 실천, 지역사회 동반 성장, 투명한 경영문화 추구' 내용이 담겨 있다. ESG 경영 슬로건은 재단 임직원의 대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청소년(Youth)과 함께 이(E)로운 세(S)상 그(G)리는 에스지(YESGI)'라는 뜻으로 재단이 청소년과 함께 추진해가는 ESG경영

의 큰 의지를 담았다.

청소년이 함께 선언하는 ESG경영 선포식을 기반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은 경영 및 사업 목표를 ESG 관점에서 재해석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그려 ESG 경영으로 거듭나는 청소년재단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이 함께 ESG경영을 공동 선언한 만큼, 청소년과 함께 ESG의 가치를 실현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광명시민 76.2% 반대

사업 내용 알수록 반대 비율 높아... '이전 사업 안다' 인지층 반대 85.2%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관련, 사업 내용을 알고 있는 광명시민의 85%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경기일보가 17일 발표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여론조사' 결과, 이전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76.2%를 기록한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0.2%를 제외하면 반대 대 찬성 비율은 약 85% 대 15%로 반대하는 시민이 찬성하는 시민보다 5.6배 많았다. 특히 이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들의 대다수인 85.2%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의 구로차량기지 거부 의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광명시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이전 사업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반대' 목소리, 3번째 타당성 조사 앞두고 점점 확산

광명시민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은 낮아졌다.

광명시가 지난 2019년 실시한 '민선 7기 1주년 시정 만족도 여론조사' 당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8.1%, 찬성은 21%였다가 2020년 같은 조사에서는 반대 61.7%, 찬성 21.9%로 반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2022년 2월 중부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63.7%, 찬성 23.3%, 같은 해 4월 일간경인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64.1%, 찬성 22.7%로 반대 여론이 소폭 증가했다. 1년 만인 이번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은 76.2%로 12.1%p 크게 상승했고 찬성 여론은 절반 가까운 9.1%p가 줄어 13.6%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올해 기재부의 3번째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거부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하면서 시민사회에 사업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월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성명서 발표, 세종정부청사 방향 등 꾸준히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시민사회도 범시민 결기대회, 이전 사업 반대 300미터 인간띠 만들기 등을 벌이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민, 시민사회단체, 정치인들은 지난 3월 9일 광명시의회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한 달여 지난 4월 14일 기준 59차례나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는 정부가 이전 사업을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거부 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민 무시', '환경 악영향'... 광명시민 거부는 당연한 결과

광명시는 정부가 광명시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 데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3%가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기지과 같은 기피시설 입지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3%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57.5%가 공청회나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로 결정할 것을, 24.8%는 설문조사와 주민투표를 통한 다수결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이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찬반을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지역 미래가 달린 대규모 기피시설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 당사자이자 주권자인 광명시민을 배제한 것에 시민들이 큰 불쾌감을 느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따라 발생할 소음, 분진, 진동 등이 주거 환경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도 확인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주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4.8%로 긍정적 영향(12.8%)을 예측한 응답자에 비해 6배나 많았다.

시는 이에 대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7만 가구가 입주할 광명, 시흥신도시와 4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등 직주 일체형 도시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는 차량기지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광명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광명시민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이제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오산시, 민·관·경 합동 안심귀갓길 참여 단체 모집

오산시는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의 날' 확대 운영을 위해 참여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의 날'은 오산시, 오산경찰서,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매월 1회 오산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방범 순찰 활동을 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사업이다.

'안심 귀갓길 합동순찰의 날'은 매

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8시~10시(탄력적 운영)에 운영하는데, ▲관내 범죄 취약구역 순찰 ▲지역의 치안상 문제점 발굴 ▲안전 관련 유인물 및 홍보물 배포 등 안전 문화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이번 4월의 합동순찰의 날은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곁동행복마을 관리소가 추가로 참여해 총 14개 단체가 민·관·경 협력 치안 활동을 벌여 안전한 오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는 오산시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031-8036-7806)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책팀 안전정책과장은 "각종 범죄가 도사리는 늦은 밤길, 각 단체가 오산시 곳곳에서 방범순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안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오산시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안심귀갓길 사업에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웅진군, 민선8기 지자체 공약 실천계획 평가 '우수'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17일,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2023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웅진군은 2023 민선8기 전무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A등급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존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B~C등급에서 민선8기 처음 A등급으로 상향된 결과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실천계획 자료를 근거로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반영한 1차 평가를 거쳐 지적사항에 대한 각 지자체의 소명으로 2차 평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군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의 중점 요소인 종합적 내용 갖춤성, 구체성, 주민참여, 공약 접근성, 선거공약 일



치도를 중심으로, 지난해 6월부터 준비계획 수립, 공약 검토 1차 보고회, 기본계획 수립, 군민 중심 평가단 모집 및 회의, 공약 실천계획 2차 보고회, 2023년 예산 반영 등 실천계획 확정까지 총총하고 빈틈없이 추진했다.

민선 8기 문경복 군수의 공약은 군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10가지 통약속을 기반으로 '인구 3만을 향한 변

화하는 새로운 웅진'군정목표 아래 8대 분야 34개 실천공약 123개 공약과제로 구성됐다.

문경복 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민선 8기 공약을 군민과 소통하면서 이행할 다짐과 앞으로 군민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청년이 행복한 안양' 주제로 대립대 안양학 특강

'다음 세대의 희망' 청년 중요성 강조 "행복의 순간 쌓여 미래 비춰주길"

최대호 안양시장이 17일 대립대학교 수업관 WCC홀에서 '청년이 행복한 안양'을 주제로 안양학 특강을 진행했다.

안양학은 안양의 어제와 오늘을 토대로 내일을 조망하는 지역학으로, 지난 2019년 시 정책공모전에서 '안양 사람이 대학생에게 전하는 안양이야기, 안양학개론'이 동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최 시장은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간 산업·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으로 성장해 수도권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한 안양을 소개했다.

또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자 다음 세대를 잇는 희망인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언급하며 "행복은 멀리있는 것이 아닌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



에 있다"며 "행복의 순간이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양학은 지도교수 외에 안양시장, 역사 전문가, 일자리 전문가, 기업인 등의 특강으로 구성되며, 총 15주 동안 진행된다.

지난 2020년 안양대에서 교양과목으로 처음 개설됐으며, 올해 1학기는 대립대 1개교, 2학기는 대립대, 성결

대, 안양대, 연성대 등 4개교가 안양학 교양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청년창업펀드 1호 921억원을 결성할 데 이어 2호(50억원 규모)를 추진 중이며,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단체 활동비 지원 등 각종 청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우용/기자

안성시 정보통신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렴 미로찾기 대회' 개최

안성시 정보통신과는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해 지난 14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공간 속 '청렴 미로찾기 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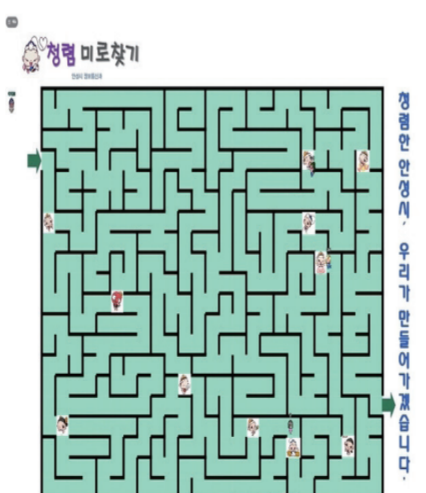
이번 '청렴 미로찾기 대회'는 11개의 갈림길마다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에 기반한 사례 중심의 청렴 관련 OX 퀴즈를 제공하여 모든 퀴즈의 정답을 맞혀야만 가상공간 속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식의 게임 형태로 진행됐다.

미로 속 OX 퀴즈를 통해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반부패 법령의 이해도

를 높일 수 있었으며, 그동안 꾸준히 받아온 청렴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성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직원들의 흥미 유발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게 됐다."라며, "청렴 의식 공유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청렴 미로찾기'의 접속주소(QR코드)를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광명소방서, 광명시민 누구나 Heart Saver로 만든다.



광명 소방서는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광명동굴에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29. 참가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광명 소방서는 올해 시민 5만 명 이상에게 심폐소생술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광명시와 협력하여 광명동굴 제2매표소 옆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마련했으며, 매주 토, 일요일(13시 ~ 16시)에 심폐소생술, 기초 응급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119 안심콜이란 가입자가 미리 등록한 질병

정보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이 사전에 환자 정보를 인지하고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하는 서비스이다.

1912년도에 만들어진 광명동굴은 금, 은 등 금속을 채굴하던 동굴로 1972년 폐광된 이후 방치됐다가 2001년도부터 관광자원으로 본격 개발되어 현재는 연평균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수도권 제1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다.

한편 광명 소방서는 광명동굴 심폐소생술 외에 소방서 내에 상설 응급처치 교육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각급 학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양평군, 풍작기원 첫 모내기 시작

양평군은 17일, 지평면 곡수리에 위치한 마을주민 전경복 씨 소유의 논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내기한 품종은 밥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고시히카리로 올해 첫 모내기는 예년에 비해 1주 정도 빠르게 진행되어, 오는 8월 말경 첫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모내기 현장에는 전진선 양평군수가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모를 심으며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올 한해 우리군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며, 높은 품질의 양평쌀 생산을 위해 지역 농가들을 적극 지원하여 농가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 등을 지원 중이며 적기 모내기와 철저한 병해충 방제, 친환경 재배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성열/기자



'하남 미래 심포지엄 & 정책제안대회' 개최 개최

하남시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 제안으로 자족도시 하남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하남 미래발전 심포지엄'과 다양한 분야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특화정책을 발굴하는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남시가 주최한 이번 '하남 미래 발전 심포지엄'과 '정책 제안대회'는 전문가와 함께 미래 자족도시 비전을 현실로 보여주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시민 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열렸다.

1부 행사인 '하남 미래발전 심포지엄'에서는 '하남의 현재'를 주제로 김동호 하남시 청년명예시장이 청년들의 고민과 관심에 대한 발표를 하고,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위원인 최윤진(☎타운즈 대표)가 하남시의 스타트업 기업이 처한 상황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봉규 투자유치단 자문위원을 좌장으로 최지용 서울대 교수, 이병현 성경대 교수, 김동호 하남시 특별보좌관, 이재혁 영화감독 등이 참여했다.

'하남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하남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한강과 미사 아일랜드를 활용한 K-스타일드 개발로 한류문화 중심도시·수변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개발전략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다. 총 140건이 접수돼 하남시 역대정책 제안공모전 중 가장 많은 정책이 제안된 이번 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뽑힌 시민 3건과 공무원 3건의 제안 발표 및 평가를 통해 1등부터 3등까지 선정했다.

시정홍보, 문화, 교육,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선정된 이번 우수제안에서 시민제안 1등은 이성근님의 '하남체스공원조성사업 및 글로벌체스축제'가 차지했으며, 공무원 제안 1등은 덕풍3동 김민중 주무관의 '오늘은 공무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접수된 정책제안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제안 공모전에 응모해 하남시민들이 만든 특화정책을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오늘 '미래발전 심포지엄'은 앞으로 하남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K-스타일드 개발을 통한 한류문화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것임을 함께 공감하는 기회였고, '정책제안대회'는 정책 시민참여를 보다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리였다"며 "K-스타일드 추진을 통해 하남시의 미래발전을 완수하는 한편, 시민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을 검토해 하남시의 우수특화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김동연, 일본 반도체장비기업 '알박' 1,330억원 규모 연구소 유치

경기도, 평택에 일본 알박(ULVAC)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투자유치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알박(ULVAC)그룹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에 성공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오후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 알박(ULVAC)그룹 본사에서 이와시타 세츠오(Iwashita Setsuo) 대표이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주식회사 알박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알박 연구소가 합류함으로써 경기도가 반도체 메카로서 높은 완결성을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며 "경기도는 반도체장비업체 1~4위 연구센터가 등지를 정도로 반도체 첨단기술의 허브가 되고 있다. 알박에서 연구소를 건립하게 된 것은 액수로 따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시타 세츠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협력과 행정지원을 해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라며 "알박은 반도체를 축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알박그룹 계열사인 한국알박은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 강화



▲ 현지시간 17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와시타 세츠오 알박(ULVAC) 대표이사와 투자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 위해 평택 어연·한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내 건물 연면적 1만 3,168㎡의 연구소를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향후 5년간 1,330억 원을 투자해 150여 명 규모의 고용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알박의 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원만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알박의 이번 투자는 '최초', '최대' 기록을 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알박의 해외지사 중 현지 인력이 기술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박은 도

내 7개 공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엔지니어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번 연구소에서는 한국 연구인력을 직접 연구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150여 명의 고용 창출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해외기업 연구소 유치건 중 최대 규모다.

경기도는 연구소 설립이 최첨단 장비 개발과 반도체 장비 국산화 촉진으로 이어져, 국내 협력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52년 설립된 알박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진공 기술을 기반으로 고품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다. 1995년 설립한 한국알박은 2000년부터 평택, 파주 등에 장비 제조 7개소, 장비설계(분당기술개발센터) 등 경기도에 총 1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전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TOK)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후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옥타와는 수출지원 파트너십 등 3건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조혜영/기자

고양시, 창릉신도시 성공적 조성 위한 소통 간담회 가져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 추진하겠다"

고양특례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 에 조성되는 창릉신도시에 자족기능이 갖춰질 수 있는 방안과 고양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덕양연합회'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소통간담회는 덕양연합회가 제안한 자족기능 확보와 선도기업 유치, 사회복지·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덕양연합회는 공화광의 접근성, GTX-A노선 등 다양한 교통수단

과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선도기업 유치, 종합병원 설립, 창릉신도시 기업유치 TF팀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함께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고양시의 창릉신도시 개발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기존 신도시들은 국가 주도형 하향식 개발이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향식 방식으로 자족도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산적해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풀어나가 고양특례시의 위상을 높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덕양연합회는 행선, 창릉, 화전, 삼송, 향동, 덕은, 원흥 등 7개 지역주민 구성하여 운영하는 민간단체로 창릉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유치 등 고양특례시 균형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18일(토) 덕양구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한영기/기자

인천 중구 "어르신들의 소중한 삶의 기억, 동화책으로 만들어요"

인천광역시 중구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접목한 어르신 자서전 동화책 제작 교육 '기억을 나누는 행복한 그림책 작가 되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3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지역 노년층(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오는 5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회에 걸쳐 동인천동행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생애를 자서전 형식의 동화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며, 푸드테라피, 마스크레이프 등에, 풀라쥬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접목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몰입할 수 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자서전은 학습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4월 19일부터 선착순 15명으로 이뤄지며,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만 65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정현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질 높은 강의와 더불어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평생학습을 통해 구민의 자아실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용인도시공사, QR코드를 활용한 토지보상 담당자와 1:1 소통 채널 운영 중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토지 등의 보상업무 시 신속한 보상 안내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보상담당자와 시민들과의 1:1 채널"을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3년 보상계획 공고 진행 사업에 대해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QR코드를 삽입한 안내문 전달을 통해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담당자와 상시 소통이 가능하다.

손실보상협의 요청 안내문에 인쇄

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담당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1:1 채널이 활성화 되는 방식으로, 해당 채널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QR코드를 활용한 보상 업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안전하고, 안내서류를 인쇄하거나 우편을 발송하는 등의 과정이 생략돼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도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최찬용 사장은 "올해부터 시범 시행되는 소통채널을 통한 빠른 대응으로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전례 보상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도 보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혜영/기자

화성시, 시민들과 주요 관심사업 공유

화성시가 민선 8기 핵심가치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개최한 '2023년 상반기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가 화성시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가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권역별로 총 6회에 걸쳐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시장과 실국소장들이 직접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오는 6월 개최되는 화성갯놀이 축제와 화성특례시 출범 준비, 권역별 교통 및 도로 조성, 문화복지 시설 건립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공공수처리장이나 폐기물처

리시설 등 민감한 사업 정보들이 가감 없이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많은 관심과 의견 덕분에 시민이 원하는 화성시의 미래를 보다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는 오는 10월에도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읽고, 재미있게 어르신들의 소중한 지난 삶을 동화책으로 제작하는 의미 있는 이번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억을 나누는 행복한 그림책 작가되기

"특별히 기억 속 소중한 추억을 책에 담아주세요!"

- 대상 인: 관심있는 65세이상 구민 약 15명
- 신청기간: 2023. 4. 19 (토) ~ 5. 1 (월) 선착순
- 교육료: 무료
- 신청처: 문화
- 문의처: 문화
- 문의전화: 중구 평생교육과 ☎032-760-7958

교육기간: 2023. 5. 2. ~ 7. 25. (매주 화 / 12회)
 시간: 11:00 ~ 12:00
 장소: 1) 동인천동행복지센터 4층 회의실
 2)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접목한 어르신 자서전 동화책 제작교육 (푸드테라피, 마스크레이프 활용 등)

* 후원 및 후원금: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관광과

부산시, 4월 21일 탄소중립 포털 '넷제로 부산' 개소

'넷제로 부산'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필요성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 위한 부산 맞춤형 행동양식 변화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부산시는 제15회 기후변화주간(4.21~4.27)을 맞아 오는 4월 21일 부산시 탄소중립 포털 '넷제로 부산'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넷제로 부산(Net-Zero Busan)'은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필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산 맞춤형 행동양식 변화를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부와 부산시의 탄소중립 정책 정보를 습득하고, 2050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한 생활 속 실천·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 탄소중립의 정의 ▲ 부산의 탄소중립 현황 ▲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 정보, 그리고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과 관련한 행사, 홍보 자료 등도 담길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부산시 탄소중립 포털이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돼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



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번 포털 개소와 함께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더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할

수 있도록 '부기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도시 부산' 동영상 제작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번 제15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4월 19일 오전 10시 시

정 국제회의장에서 제53주년 지구의 날 기념식이, 4월 22일 오후 8시 부산시 전역에서 지구의 날 기념 불끄기 행사가, 4월 27일 오후 3시 시민공원에서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이 열릴 예정이다.

송진진/기자

울릉군, 영농철 농촌일손돕기로 일손부족해결에 나서

울릉군은 농번기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22개 산채(산마늘, 섬썩부쟁이(부지갱이), 눈개승마(삼나무), 참고비, 물영경퀴 등)농가를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5월말까지 관내 2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봄철 농촌일손돕기는 산채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산채 채취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울릉군청, 해군118조기경보전대, 울릉경비대, 울릉교육지원청, 농업관련기관단체 등 240여명이 참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고령농, 여성 단독 및 소규모 농가 등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촌일손돕기 수혜농가 A씨는 "수확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하여 적기에 수확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울릉군의 도움으로 수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매년 농번기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일손돕기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울릉도 산채를 적기에 수확하여 산채 품질고급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인 영농 현장지원 실천으로 농촌에 활기를 돋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준.조감제/기자



통영 섬에서 2박 3일 살아보기 '우리가 바라던 통영, 슬기로운 섬생활' 본격 시작

통영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우리가 바라던 통영, 슬기로운 섬생활'을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바라던 통영, 슬기로운 섬생활'은 통영의 아름다운 섬에서 2박 3일간 생활하면서 지역민의 삶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말~5월에는 만지도, 5월말~7월/10월에는 우도, 4월말~12월에는 육지도에서 각 섬마다의 특성을 살린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만지도 편은 전복따기+해산물채집(필수체험), 우도 편은 낚시체험+해산물채집(필수체험)이 진행되고, 육지도 편은 경우 시기별로 해산물채집, 낚시체험, 육지도 일주관광(필수체험)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섬생활 프로그램에는 총 500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숙박비와 체험비 일부가 지원된다.

오는 4월 24일~26일 2박3일간 진행되는 '만지도 슬기로운 전복따기 1기' 및 '육지도 슬기로운 채집생활 1기'의 참가신청은 '통영이랑' 홈페이지에서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슬기로운 섬생활 홈페이지 또는 이랑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객에게는 지역주민의 일상을 공유해보는 새로운 여행 기회를 지역주민에게는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구미시설공단, 봉곡도서관에서 보내는 봄 편지

세상에 하나뿐인 편지봉투 선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재웅)에서 운영 중인 봉곡도서관에 가면 정성스럽게 만든 독특한 편지봉투를 만나볼 수 있다.

바로 책 표지로 만든 형형색색의 편지봉투이다. 책 겉면을 감싸는 표지는 책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으로 독자의 눈길을 단숨에 끌어들이 수 있는 장면과 문구가 실린다.

봉곡도서관 책사랑 봉사단과 직원들은 시간이 도착하면 수서과정에서 버려지는 책 표지를 활용해서 예쁜 편지봉투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봉투는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책을 선사하는 의미를 지닌다. 시민들은 봉투에 세뱃돈을 담거나 지인에게 부치는 편지를 담아내기도 하면서 책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한다.

이재웅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봉곡과 선산도서관은 차별화된 특화 도서관으로 이름이 높다. 봉곡도서관의 책 표지 봉투 제작과 같은 독특한 이벤트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 봉곡, 선산도서관은 기존의 연속하고 조용한 도서관에서 벗어나 특별한 문

화 공간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미시설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적「ESG 경영」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동현/기자



영주시, 경북안전체험관 공모 신청 앞두고 최종점검

준비상황 점검 회의... "시민 열망 받들어 반드시 유치"

영주시는 17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호준 영주시 부시장과 이인중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한 그간의 활동을 확인하고, 부지공모를 위한 준비 등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경상북도소방본부가 주관하는 경북안전체험관 부지공모는 하반기에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안전체험관 신규 건립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체험관 신규 건립 사업은 2017년에 1단계 사업으로 전국 8개소에 안전체험관 건립 또는 건립 진행 중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유보됐다가 올해 하반기에 2단계 사업이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 8월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선비세상 일대에 대한 부지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안전체험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발 빠르게 진행해왔다.

송호준 부시장은 "경상북도 안전

체험관 유치를 염원하는 현수막으로 시내가 가득 찼다. 10만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안전체험관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친환경 LED 멀티사인 도로명판 추가 설치

영덕군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도로명판의 가시성을 높여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 14일 친환경 LED 멀티사인 도로명판을 관내 5개소에 새로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곳은 영덕대교, 영덕역, 영덕 소방서 인근 등 영덕읍 회전교차로 3개소, 예주문화예술회관 인근 영해면 회전교차로 1개소, 창수 파출소 인근 사거리 1개소 등으로, 복합 야간조명 도로명판 방식을 채용해 주간과 야간의 구분 없이 도로명판의 가시성과 가동성을 높였다.

LED 멀티사인 도로명판은 주소정보와 관광명소 안내 등의 지역 정보와 길 안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자가 발전으로 작동해 자동으로 켜지고 꺼져 관리하기도 쉽다.

또한, LED 모듈로 작동해 기존 조명용 전등 대비 8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해 친환경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영덕군은 지난 2013년부터 친환경 LED 멀티사인 도로명판 설치 사

업을 추진해 농협주유소 사거리와 삼사해상공원 입구 등 교통량이 많고 길 찾기가 쉽지 않은 회전교차로와 갈림길이 많은 곳을 위주로 지금까지 총 16개소에 사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LED 도로명판 1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또한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길 찾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로명 주소 시설을 활용해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영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개최

영천시는 지난 14일 영천시청 영산대회의실에서 영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천관광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듣고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보현산대 출렁다리(가칭) 등 관광진흥과에서 현재 진행되는 주요 관광시설 및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알리는 시간을 가져 보다 심도 있는 해설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복무 관련 준수사항을 전달하며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영천시는 현재 1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노계문학관, 보현산 녹색체험터,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임고서원, 화랑설화마에 배치되어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날이 풀리면서 국내 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천 민간 홍보대사인 해설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며, "해설사의 재밌고 유익한 해설로 관광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 문화관광해설 예약 및 신청은 영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에서 가능하다.

한반식/기자



김천시, 복지등기우편서비스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7일 김천우체국(국장 석기수)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충섭 김천시장은, 석기수 김천우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등기우편 배송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는 김천시에서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복지 안내문이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상태 등을 파악해 기초정보를 지자체로 회신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시에서 2차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석기수 김천우체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국 집배원들의 도움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

길 바라며, 앞으로도 김천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김천시에서는 발굴된 대상자에게 촘촘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22개 읍면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봉화군, 인생 2막 수다방 지역 갱년기 여성 증상 완화에 도움줘



봉화군이 40~60대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생 2막 '수다방'이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5월 9일까지 운영되며 23명이 신청해 지난달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되고 있다.

인생 2막 수다방 프로그램은 산부인과가 없는 봉화군에서 운영되는 '안동의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협력해 참여자들의 갱년기 호르몬 검사 및 부인과 질환에 대해 진료를 해준다.

또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우울증 예방교육과 우울증 척도검사를 진행해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상담치료를 같이 진행하며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스즈키000(50세, 봉성면 거주) 씨는 "땀이 나거나 두통,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불안 증상이 갱년기 증후군인지 모르고 지냈는데 이번 프로그램으로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우울감을 감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40~60대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에 대해 바르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TK새시대개막 신공항대역사는대구공무원의책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500만 시도민과 함께 경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 덕분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월 17일 엑스코에서 열린 첫 직원조회에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과 함께 경축하고, 시(市) 공무원들에게 대역사에 도전하는 주인 된 자세를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역의 건국 이래 최대의 사업이며 대구경북 중남부 경제권 구축의 토대"라며 "TK 새 시대의 개막과 대한민국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열린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이 통과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고, 지역에서조차도 큰 호응은 없었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대구시장으로서, 대구 시민과 국민들을 설득하여 일부의 반대와 견제를 넘어서 영호남의 협력을 통해 마침내 대구 미래를 위한 헌정 사상 첫 기부대약을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통합신공항의 청사진도 발표했다. 우선, 통합신공항은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 기지로, 평상시에는 국내 항공 여객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여객물류 복합공항 건설

이다.

또 공항 산단 수백만 평은 항공 수출입이 가능한 미래첨단 산업 중심으로 구축하고, 고속도로, 고속철도, UAM 등 교통망을 완비해 단 시간 내에 공항에 닿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대구의 미래 계획도 신공항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동부의 K-2 공항 후적지 등 500만 평은 관광, 상업, 첨단 연구개발 단지로 조성, 대구경제와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엔진으로 만들고, 중앙고속도로를 확장하고 군위와의 도로 접근성을 크

게 높여겠다"라고 말했다.

또 "도청후적지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칠곡 한복판의 20만 평은 신공항 프론트 도시로 개발하고 K-2 후적지역과 동대구 서대구역을 거치는 신공항 고속철도, 각 구군의 버티포드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UAM 노선을 건설해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드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00만 평의 제2국가산업단지나 서비스 로봇 융합단지, 그리고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혁신 거점도시도 신공항을 통해 세계로 연결될 것"이라며 "3.8km 활주로

국제공항을 가진 대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에게도 주인 된 자세도 당부했다.

"대구는 대한민국 혁신의 롤모델이 됐고 2030년 신공항 개항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며 "사상 초유의 대역사 앞에 신공항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구 공무원들의 책무이며 우리들 손으로 해내야 하고 우리 당대에 이룬 도전이 주어진 것에 감사드리며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KBS 전국노래자랑 공개 녹화 뜨거운 성원으로 마무리

5월 21일(일) KBS 1TV 방송 예정, 지난 15일 오후 1시 예천읍 한천체육공원에서 녹화

예천군은 지난 15일 한천체육공원에서 관람객 3,000여 명의 뜨거운 성원 속에 열린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KBS 전국노래자랑 예천군편 공개 녹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노래자랑 예천군편에서는 지난 13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진행된 1차, 2차 예시에 참가한 255명 중 최종 합격한 15명이 출연해 평소 숨겨둔 실력과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한천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녹화는 군민화합과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녹화중 내리는 비도 아랑곳없이 많은 군민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출연자들의 열정과 실력에 흥을 보태며 응원을 보냈다.

특히, 행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군민안전을 위해 예천경찰서, 예천

소방서, 예천읍의용소방대, 예천해병전우회, 예천모범전자회 등에서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에 힘썼으며, (사)예천에총지회에서는 따뜻한 차분사로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캐그우먼 김신영이 사회를 맡아 출연자들이 긴장하지 않고 최상의 실력을 보일 수 있도록 진행했고 초대가수로 워크, 신승태, 이혜리, 은가은, 조항조가 출연해 무대를 빛내고 관람객들에게 흥겨움을 더해 주었다.

김학동 예천군수도 끝까지 녹화현장을 함께했으며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개최될 활축제와 U20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도시로 '우뚛'

- 「청송사과」 11년 연속 대상 수상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 「산소카페 청송군」도 4년 연속 대상받으며 도시브랜드 강자로 등극
- 윤경희 청송군수, "보다 우수한 품질의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 소비자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혀

청송군이 '청송사과(사과브랜드)'와 '산소카페 청송군(도시브랜드)'을 앞세워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18일(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청송사과'와 '산소카페 청송군'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청송사과」는 11년 연속, 「산소카페 청송군」은 4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브랜드를 가리는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 브랜드 시상식이다.

올해 18회를 맞은 브랜드 대상에서 사과브랜드 부문에는 청송사과를 비

롯한 여덟 개 사과 브랜드가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소비자의 선택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소비자들은 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청송사과'를 선택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소비자들이 청송사과를 최고 브랜드로 생각하는 이유를 사과 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 우수한 품질 관리, 앞선 재배 기술과 적극적인 판매 전략에서 찾았다.

일교차가 큰 청송의 지역 특성은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다시 찾는 청송 사과 맛의 비밀 가운데 하나다. 청송사과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연평균 13°C가 넘는 해발 240m 이상의 산지에서 재배된다. 사과 생육 기간에 일교차가 크면 사과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영양분을 과육에 저장한다. 낮과



밤 사이 큰 일교차가 사과의 영양분을 저장하는 활동을 촉진하여 과육을 단단하게 하고 단맛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송사과가 자연환경에만 의지해 만들어진 브랜드는 아니다. 더 아삭하고 단맛이 나는 사과 재배를 위한 청송 농민들의 수십 년 간 노력은 다른 지역이 따라올 수 없는 사과 재배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게 했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는 대한민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대표 과일 자리에 청송사과를 올려놓았다.

특히 청송군은 1994년 '청송사과' 상표등록, 2007년에는 '청송사과' 지

리직 표시제 등록, 키 낮은 사과 목욕 도입, 친환경 저농약 재배 기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청송항금사과 '황금진'을 개발하는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도시 시식 홍보행사, 직거래 판매지원, 청송사과 유통센터 운영, 청송사과 품질보증제 시행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높은 신뢰와 호응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최고 사과를 재배한다는 농민의 자부심과 청송군의 노력은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최초로 사과 수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청송군은 2022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연간 300톤 사과 수출 쿼터 승인과 사과주

스 5년간 무제한 수출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사과 생산량 증가가 가져올 가격 하락에 대비해 청송군은 사과 수출량을 1만 톤까지 늘리는 계획을 짜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산소카페 청송군」도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도시브랜드의 저력을 과시했다. 도시브랜드 부문도 청송을 비롯한 8개 지자체가 후보에 올랐으나 최초 상기도, 보조인지도, 마케팅활동, 브랜드 선호도 4가지 항목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산소카페 청송군」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리게 되었다.

「산소카페 청송군」은 청송이 가진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자연 자원을 상징하는 공간적인 색깔을 입혀 지역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청송군의 도시브랜드이다.

특히 이러한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 청송,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

홍 정원인 '산소카페 청송정원' 등은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고 있는 청송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 소비자들도 이를 크게 인식하고 공감해 주고 있다.

군은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주산지 왕버들 나무 복원, 신기리 명품소 조성, 청송정원 주변 생태공원 조성, 청송백자 레지던스 사업 등으로 청송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심신을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관광지를 만들 복안이다.

또한 전선지중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청송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국 최초 관내 시내버스 전면 무료운행은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효과도 특별히 보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과와 산소카페 청송군을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선택해 주신 소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청송군은 군민과 함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보다 우수한 품질의가장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3년 상반기 경북 농어민수당 지급



영양군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2023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상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30만원씩 총 3,897농가에 11억 7천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하며, 대상자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영양군은 올해 초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았고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축산과와 읍·면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을 누락해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수당지급에 걸저를 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지사 공약실천계획 최우수(SA)등급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주관 공약실천계획 평가, 민선 7기에 이어 최고등급

경상북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는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와 함께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개한 공약실천계획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에서 심층 검토한 1차 평가와 모니터링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지자체 소명 및 보완자료를 최종 검토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갖춤성(비전·기대효

과 등 19개 지표, 60점) △민주성(공약사업확정 기한유무 등 9개 지표, 25점) △투명성(정보접근성 등 5개 지표, 15점) △공약일치도(일치성 등 2개 지표, Pass/Fail) 등 총 4개 분야 35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민선 8기 경북도지사 공약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기회 △배우고 일할 기회 △세계로 진출할 기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기회 등 "5가지 기회"로 이뤄졌으며 100대 공약, 16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들 공약사업에 대해 4개 평가분야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맞춤형성과 투명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세부적으로는 비전과 목표, 공약사

항별 세부실천계획, 공약관리계획 등을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잘 제시했다고 평가 이유를 밝혔다.

실천계획이 잘 짜여짐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주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주요 프로젝트 T/F 구성 운영, 도민과 소통 등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 이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공약은 도민과의 천금 같은 약속이다.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제20회 의성군민건강등산대회 개최

의성군은 16일 의성군민 및 의성군 산악연맹 가맹단체 회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대천의 왼편으로 나란히 이어지는 해발 210m의 구봉산 등기구를 따라 제20회 의성군민건강등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의성군 산악연맹에서 주최 주관했으며, 군민들이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며, 봄철 등산의 아름다움을 주기 위하여 개최하게 됐다.

건강등산대회 코스는 구봉공원 무대행사장에서 출발해서 의성교, 문소루, 충혼탑터 쪽 방향의 등산로를 따라 다시 무대행사장으로 오는 코스이며, 참가한 모두에게 생수, 경품추첨

권 등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자전거, 의성농산물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개최식에서는 최시용 의성군 산악연맹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군의회 의장 등 여러 내빈들이 방문하여 이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제20회 의성군민건강등산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참석하신 모든분들이 오늘 산행에서 봄의 향연을 마음껏 취하시고 안전한 산행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안동시,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개최

차전놀이와 놀타리밧기를 구심점으로 안동 대표 봄축제 단독 개최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안동민속축제가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다.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는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원도심(구. 기차역, 문화공원·용부공원) 일원에서 민속 콘텐츠를 중심으로 단독 개최된다.

그동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지역 축제 브랜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면, 이제 전통 민속의 역사성과 고유성이 살아 숨 쉬는 안동 대표 봄 축제로 단독 개최해 독자적 정체성을 선보인다.

특히, 핵심 콘텐츠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축제 명칭을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변경했다. '안동민속'의 두 기둥인 차전놀이와 놀타리밧기를 구심점으로 대규모의 연희자가 역동적인 불거리와 감동적인 역사 스토리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축제의 흥행을 이끌고 지역 민속 콘텐츠 전반으로 활력의 마중물을 되돌려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는 지난 탈춤축제에 이어 원도심 개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교보생명에서 구 안동역사(모디684)로 이어지는 경동로 6차선 도로를 통제해 주 무대로 사용

할 예정이다. 축제장을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 테마 별로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민속 콘텐츠를 통한 거리형 축제가 핵심이다. 교통이 통제된 도로 위에서 느낄 수 있는 해방감과 일탈성을 강조하고 참여형 축제로 관람객의 자율성을 구현한다. 우선, 경동로 6차선에서는 안동대표 민속놀이인 차전놀이와 놀타리밧기에 관람객과 시민, 상비군 등 1,000명 이상 참여해 대형화·체험화한다. 또한, 대형민속공연과 자매도시 초청공연, 시민화합한마당&차전대놀이에서는 최고의 흥과 신명의 한마당이 연출된다. 부대 행사로 안동양로연, 안동사투리경연대회, 여성민속한마당도 축제기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상권을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로 만들 예정이다. 거리마다 추억의 민속놀이가 펼쳐지고, 전통주와 하이볼이 가득한 '민속 bar'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배치했다. 축제장 내에는 안동 농특산물·전통술 전시, 향토음식체험, 안동한우축제, 음식의거리 야외포차, 플라마켓 구역도 조성했다.

메인무대에서는 중장년층의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춘서커스'가

공중곡예, 비보이 집체, 서커스 발레 등의 프로그램 선보이며 '전통놀이', '줄타기' 등 다양한 초청공연을 선보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디스코광광, 미니바이킹, 회전그네, 워터볼 등 원도심 내에서 작은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다.

권석환 안동문화원 원장은 "새롭게 도약하는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는 안동 사계절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의미를 갖는다. 안동만의 문화적 소재를 축제콘텐츠로 개발하여 안동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지역의 문화적 동질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지역성이 있는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하고 그 질을 높여 안동 문화의

지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여줄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속문화의 정수가 담긴 안동만의 독창적이고 신선한 콘텐츠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발길을 이끌고 마음을 움직이는 축제



를 선보일 것"이라며 또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의 신명과 흥으로 화합하고 도심 전체가 신명과 흥으로 들쭉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도시 구석구석 전제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 군 특성화고 전문 인력 양성

경북교육청은 지난 17일 화랑교육원에서 '군(軍) 특성화고등학교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발대식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 해병대 사령부 인력혁신과장 재세훈 중령, 육군포병학교 포술 2교육단장 이경원 대령, 50사단 122여단장 신성 대령, 해병대 1사단 행정부사단장 최윤영 대령을 비롯한 군 관계자, 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군 특성화고등학교는 군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로, 경북교육청은 5개 학교(신라공업고, 경북항공고, 경북하이텍고, 영천전자고, 한국국제조리고)에서 8개 분야, 11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군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5교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특성화 예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 기준에 맞춰 최종 선발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협력 교육기관 입소 교육 △자매결연 부대 방문 체험 교육 △주특기 분야 전문 교과(전체 교과의 40% 이상)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특성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후 전문기술병으로 입대해 복무 후 전문기술부사관으로 임관해 근무하게 되며, 군 복무 중 e-MU(e-Military University)에 진학해 전문대학 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전역 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국방부와 협약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과 리더십을 갖춘 부사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 특성과 과정을 통해 배출된 우리 학생들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공약평가 3년 연속 'SA등급(최고등급)' 받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전국 226개 기초단체 평가서 최고등급

경주시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3년 연속 'SA(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실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주시는 종합 평점 90점 이상에 개 부여되는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반영한 1차 평가를 거쳐 지적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소명에 대한 2차 평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갖춤성(60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Pass/Fail) 등 분야를 대상으로 35개 항목을 평가해 총점 90점 이상은 SA등급,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나눠 지자체마다 변별력을 줬다.

모든 평가에서 경주시는 상위점수를 받아 종합 평점 90점 이상에 부



여되는 SA 등급 반열에 올랐다.

경주시는 2021년과 2022년에도 S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공약평가에서 최고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앞서 경주시는 민선 8기 공약을 10대 분야로 확정된 후 지난해 8월 공약 실천계획 점검 주민평가단 구성하고 3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꼼꼼하고 총중점 그물망 계획을 완성했다.

또 경주시는 공약 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난해 10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육성 9건 △관광산업 혁신, 관광객 2000만 시대 10건 △좋은 일자리,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 12건 △온(溫, All)가족 행복누리 도시 16건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 15건 등 총 127개 사업이다.

주낙영 시장은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을 철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함평군-육군보병학교, 상호 협력체계 구축 위해 '맞손'



전남 함평군과 육군보병학교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육군보병학교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협력 및 상호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박원호 육군보병학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군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 지원 및 홍보 ▲보병학교 발전을 위한 훈련 및 복지지원 ▲재난 대응 시 상호 협업체계 구축 ▲문화·체육·교육 분야 교류협력 등이다.

박원호 육군보병학교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해 훌륭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 이상의 함평군수는 “육군보병학교와 끈끈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문화, 예술, 교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전남도 국제자동차경주장,도민사랑받는 공공체육시설 기대

전남도, 연간 260일 이상 특색있는 행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는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국내 유일 1등급 원형경주장(서킷)인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나도록 매주 특색있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간 260일 이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을 비롯해 10월 전남도가 주최하는 종합 스포츠 축제인 '전남GT(Grand Touring)' 등 4월부터 주말마다 국내외 24회의 모터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5월부터 모터스포츠와 레저스포츠를 접목해 관광객, 동호인이 함께 즐기며 체험하는 축제인 '전남 모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국 베스트튜닝카 선발대회, 자전거대회, 마라톤대회, 서킷택시, 동호회 주행 등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기간 중 4회 운영한다.

또 5월부터 9월까지 모터스포츠 기

초종목으로,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카트대회가 4회 열린다. 주중에는 신차 테스트, 타이어 개발, 스포츠 주행, 고성능 자동차 부품 테스트 등 자동차 관련 기업의 성능시험과 기업 행사 등으로 120여 일 이용될 예정이다.

11월엔 전국장애인체전 사이클 종목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체육시설로의 활용도 확대된다.

전남도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모터스포츠 마니아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 모터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했다.

카트장과 캠핑장을 중심으로 가상체험관, 드라이빙장, 키즈드라이빙체험장, 드론연습장, 넷어드벤처,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 등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경주장 행사와 연계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곽준길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모터스포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저 및 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겠다”며 “관객 유치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전남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미래 먹거

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 1등급 경주장인 국제자동차경주장은 모터스포츠 대회 및 스포츠행사, 자동차 기술 개발로 연간 260일 이상 활용되고 있다.

정해영/기자

솔로 탈출 꿈꾸는 직장인, 나주에서 설레는 봄의 향연

최종 4커플 매칭 성공... 장소, 프로그램 다양화 큰 호응

솔로 탈출을 꿈꾸는 나주 지역 미혼 남녀 직장인들이 한데 모여 설렘 가득한 봄의 향연을 만끽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미혼 남녀 직장인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솔로엔딩, 그대를 봄'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건강한 만남, 결혼 가치관 확산을 통한 저출생-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시책이다.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체, 자매교류 도시 등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만남 자리를 추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빛가람동 듀플렉스 호텔에서 열렸던 '솔로엔딩, 우리 지금 만나 행사'에서는 4커플이 매칭에 성공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한층 다양화해 청춘 남녀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나주시 영산동에 위치한 영산나루에서 첫 만남을 가진 참가자들은 어

색함 속에 자기소개, 티(tea)파티, 팀별 야외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이내 대화의 물고기를 텄다.

이어 산포면 글램핑장으로 장소를 옮겨 낚시 체험, 바비큐 파티, 로테이션 매칭 대화, 장기자랑 등을 통해 봄밤의 낭만을 즐겼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진행된 최종 커플 매칭 결과 총 4커플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게 됐다.

한편 행사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매우 긍정은 39%, 긍정은 56%로 참가자 대다수가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커플 매칭에 성공한 참가자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이 오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설문조사 결과 및 의견 제안 사항을 다음 행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구례군 힐링 노하우 문화 체험 추진

전남 구례군은 지난 13일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행정협의회 힐링 노하우 문화 체험을 대한노인회 전남 구례군지회 회원 30명과 함께 추진했다고 밝혔다.

구곡순담 힐링노하우 문화 체험은 구례군, 곡성군, 순창군, 담양군이 건강장수 노인들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4개군이 순번제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천년고찰 천은사 돌레길 걷기, 압화박물관 견학, 목재문화체

험 등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행사는 회장군인 구례군을 시작으로 담양군(19일), 순창군(28일), 곡성군(5.3일) 순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곡순담 힐링노하우 문화체험이 지역 어르신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한 장수문화축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고액 기부 잇달아

(주)남양티브 흥세곤 대표, 장흥 불령장 박주일 대표 500만원씩 기부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장흥군은 인천에서 남양티브를 운영하고 있는 흥세곤 대표와 경북에서 대주불령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주일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고 밝혔다.

흥세곤 대표는 장흥군 제1호 아니소사이어티이자 천관문화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고향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박주일 대표는 경북에서 대주불령장을 운영하고 있던 장흥군에 불령장을 새로 오픈하여 지역민들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어려운 경기속에서 고향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기부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들이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민선 8기 최경식 시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전국 최고 '최우수(SA)'등급 획득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226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최고 등급(SA) 획득



남원시가 (사)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4월 17일 한국메니페스토본부에서는 4개 분야 35개 지표(강충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로 평가하여, 점수에 따라 SA(90점 이상), A(80점 이상), B, C, D 5개 등급으로 차등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했으며, 남원시는 90점 이상을 받아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평가한 것으로 남원시가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한 것은 최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강한 의지가 반영한 결과라 더욱 뜻깊은 수상이다.

현재 남원시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산업 선도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대 분야에서 총 41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앞으로 남원시는 공약실천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이행을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심하게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주민배심원제, 정책자문위원회 등 시민참여를

정례화하여 일 잘하고 신뢰받는 행정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 시민 소통과 성실한 시정수행을 바탕으로 시정의 전 분야에서 실행력과 추진력을 더욱 높여 모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금번 평가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메니페스토 평가단에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26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자료를 토대로 강충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이다.

이남출/기자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장성군 온다

20일 제1160회 21세기장성 아카데미서 강연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오는 20일 열리는 제1160회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서 강연을 맡는다.

권 교수는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 등의 저서와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다수의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범죄 프로파일링 전문가다. 범죄 프로파일링은 범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범인의 특징을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2000년대 초반 윤의철 경무관에게 발탁되어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가 된 권일용 교수는 이춘재, 정남규,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을 비롯해 1000여 명의 범죄자를 프로파일링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권일용 교수에 따르면 현대사회 범죄는 정서적 학대와 심리적 폭력으로 절절된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범죄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범죄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제1160회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목요일인 20일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식전행사로는 댄스팀 '미스몰리'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현장 강연은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 입장이며, 장성군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청강도 가능하다. 강연 영상은 장성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

오홍근/기자

김관영도지사, 새로운 전북 발전 위해 정읍시정과 공감소통

17일 '바이오산업 인프라·관광산업 잠재력 키우자' 강조

김관영 도지사가 '함께 더 특별한 전북 시대, 정읍시와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정과 시정을 공유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17일 정읍시를 방문해 1일 명예 정읍시장으로 위촉된 뒤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원과의 만남, 도민과의 대화, SK넥실리스 방문을 통해 전북 발전에 필요한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이학수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간부회의 자리에서 전북도 주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 구절초 지방정원 지정,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개관 등 지난해 정읍시가 이룬 성과들에 대해 격려했다.

또 전북 특별자치도 시·군간 상생발전을 위해 정읍시도 특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정읍시는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사업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처리비 지원 △정읍천-정읍역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제



3 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로 개량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청원과의 만남에서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비롯한 도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정읍은 미래성장동력인 미생물 바이오산업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이자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최적의 관광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라며

"정읍의 강점과 잠재력을 가꿔 새롭게 도약하는 정읍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한국농수산대 청년연합회 회원들과 함께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청년 농업인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마지막 일정으로 SK넥실리스를 방문해 기업 현황을 청취하고 동반 생산공정을 직접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전략산업"이라며

"SK 넥실리스가 이차전지 선도기업으로서 산업을 견인해 나간다면 전북도가 주력산업으로 꼽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을 방문해 주신 김관영 지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롭게 도약하는 정읍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SA' 최고등급 획득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가 최우수 선정

광주광역시 서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자료를 대상으로 ▲맞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분야 35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한 후 5단계(SA-A-B-C-D)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 평점 90점 이상으로 SA를 획득했다.

민선8기 출범 후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한 17개 공약 67개 사업을 제시했고, 사업부서 검토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이행사업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민과의 약속을 추진하면서 무작위로 선별한 주민배심원을 통해 공약 실천계획 확정 및 이행 과정 전반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매니페스토(공약), 정책 제안(바로문자하랑께), 열

린구청장실 코너를 마련해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공약이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약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해내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으로 공적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민선8기 공약실천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만큼 내 결에 구청장으로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더욱 소통하면서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말 기준 마을중심 자치도시, 골목중심 경제도시, 사람중심 복지도시, 생태중심 안전도시, 행복중심 문화도시 등 5대 분야 공약사업에 대해 46.94%의 이행률을 달성했으며,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분기별 점검과 주민배심원단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주민배심원단 활동 등 공약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공약의 투명성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기자

무안군, "4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 개최

전남 무안군은 '문화가 있는 슈퍼매직 무안' 프로그램으로 2023년 지역 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연사업비(국비 87%)를 지원받아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4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마술사 이은결의 '비온드 매직'' 공연을 선보인다. 마술사 이은결은 지난 20년간 정형화된 마술에서 벗어나, 장르를 뛰어넘는 도전과 실험으로 대한민국 마술의 대중화를 이끌어 오며 발전시킨 선구자다.

'비온드 매직' 공연은 기존 대형 마술 공연을 탈피하여 보다 가까운 무대와 시야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술 콘서트로 다이나믹한 퍼포먼스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4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이한철 밴드의 '슈퍼스타'' 공연으로 가수 이한철과 7인조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 공연이 펼쳐진다.

"**썸**잖아 잘 될 거야"의 가사로 국민 격려송으로 등극한 슈퍼스타, '년나의 넘버원', '산책', '홀려간다'와 같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성의 노래와 토크가 함께하는 공연이다.

이와 더불어 4월 25일, 4월 26일 오후 7시 20분에는 최진영화 '리바운드', '킬링로맨스'를 연속 상영한다. 티켓예매는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송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무안군이 주관하며 '2023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광남/기자



월출산 품속 10만 평 녹차밭에서의 힐링, '강진 월출산 봄소풍 축제' 5년만에 열려

강진군은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축제'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월출산 자락 아래, 강진다원 녹차밭 일원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축제의 주무대는 월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꼽히는 금릉경포대 앞의 주차장 공간에 마련된다.

월출산은 설악산, 주왕산과 함께 국내 3대 암산으로 손꼽히며, 33.3ha(약 10만평)의 녹차밭은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에서 운영하는 차밭으로, 큰 일교차와 맑은 안개가 녹차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키워내는 녹차의 성지이다.

월출산 봄소풍 축제는 2017년에 처음 시작해, 2018년까지 2회에 걸쳐 개최됐다가, 올해 5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개최된다. 그동안 미뤄왔던 만큼 풍성한 행사와 다양한 체험거리가 관광객을 기다린다.

모두 3개 분야에 34개의 체험과 놀이 행사가 준비되는 이번 축제 가운데 '어느 봄날의 브런치'는 녹차밭 일대에서 하염없이 봄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간단한 브런치와 돛자리가 2인 기준으로 2만 원에 제공된다.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되며 하루에 100세트가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가 필요하다. 현재 토요일 예약은 완료된 상황이다.

차 소풍도 있다. 한없이 펼쳐진 녹차밭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다도 체험은 '비우고 내려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선물하고, 수로 위에 술잔을 띄우고 그 술잔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한 수를 읊었던 풍류,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이 백운동원림에서 술 대신 차로 재연하는 행사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린다. 행사에서는 '사랑가' 등 가여금 연주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대형 녹차밭과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달빛한옥마을', 담양 소쇄원, 완도 부용동과 함께 호남 3대 정원이었던 '백운동 원림' 등을 강진군 문화해설사의 생생한 설명을 들으며 걸어보는 트레킹 코스도 '이가월기(이야기가 가득한 월출산 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된다.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스텝표를 찍어오면 강진사랑상품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29개의 아름다운 한옥이 그림엽서처럼 펼쳐진 강진달빛한옥마을에서는 4월 22일 오후 4시, 사월의 달빛콘서트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군다.



강진군은 지난 청자축제를 봄으로 개최하기를 옮겨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월출산 봄소풍 축제로 '사계절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 강진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는 전략이다. 군 관계자는 "월출산 봄소풍 축제에 와서 짧은 봄을 마음껏 즐겨주시고, 4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는 '마랑놀토수산시장 축제'와 이어지는 '보은산 수국길 축제(6월 30일~7월 2일)'에도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진도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최 준비 '막바지'

소방·가스·전기 등 관광객 안전과 주차,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진도군이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청 회의실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이날 추진상황 보고회는 20여개 협업부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장 준비와 교통관리, 안전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진도군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진도

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주요 행사는 가수 송가인 등이 출연하는 개막식, 다시래기와 씨깃굿, 만가 등 민속·문화예술공연, 기적의 바닷길 미디어아트 등 5개 분야 70여종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진도군과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는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관광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축제 준비단계부터 폐막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행정안

전부·전라남도·유관기관 등 총 30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 소방·가스·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도 진행한다.

해안 환경정비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전담반 ▲행사장 인근 바다 환경 지킴이 ▲어선·굴착기 등 원 등 축제장 해양쓰레기 수거와 어구 정리 등 실시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즐겁고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완도군, 청산면 직원 관사 '달팽이관' 준공식 개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의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 업무 협약 첫 결실

완도군에서는 지난 13일 청산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박성규 의원, 청산 면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신축한 직원 관사 '달팽이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준공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청산면 직원 관사 신축은 지난 2020년 2월, 완도군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간 '완도군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원-포인트 단체 협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하여 이뤄낸 결실이다.

그동안 완도군에서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지난 2021년 군비 16억 원을 확보했고, 같은 해 12월 착공하여 1년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마침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축된 청산면사무소 직원 관사는 현 청산면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494㎡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면장 관사와 세탁, 건조실, 2~3층 직원 관사 10실 등 총 11개 실로 조성됐다.

직원 관사의 명칭을 완도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슬로시티 청산도의 느낌의 미학과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한 '달팽이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날 행사는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신우철 군수의 기념사,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의 축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

맹 석현정 위원장과 전국시군구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도서 지역 노후 관사 건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께 완도군 800여 조합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조합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완도군의회 박성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 특성상 도서 지역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건고 지역 근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노후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축사에서 석현정 위원장과 공주석 위원장은 "요즘 완도 전북산업을 많이 어려워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우철 군수님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의 약속을 지켜 주신 만큼 우리 조합에서 완도 전북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청산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 첫 결실에 이어 소안면 직원관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금당면과 생일면 신축에 이어 2024년부터는 보길면과 노화읍 등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영을/기자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102곳 적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102개소 적발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약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평택시 소재 'B' 업체는 황산 약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

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 샤워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샤워대를 비치해 샤워 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파주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 샤워 시

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시흥시, 시흥경찰서-야생생물관리협회와 봄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시흥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시흥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봄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쳤다.

시흥시와 시흥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시흥시지회 21명이 참여한 합동 단속을 통해 철새 서식지와 포동, 월곡동, 하중동, 장곡동 일대 밀렵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울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앞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시흥시지부에서는 지난 겨울철(2022.11.~2023.3.)에 밀렵방지 활동을 통해 야산에 설치된 불법엽규류 55점(창에, 울무 및 뱀그물 등)을 제거해 폐기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렵행위 등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시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야생동물의 생태계 파괴 방지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계기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우용기자

광명경찰서,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 운영

4. 13 ~ 5. 31, 7주간 음주운전 및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광명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등 잇따른 음주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감 증대 및 제감안 전도 저하에 따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주·야간 구분없이 불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 중에 있다.

광명경찰은 지난 16일 광남중학교 앞 스쿨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면허정지 수치(0.039%)의 주취운전자 A씨를 적발했다.

또한, 관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스쿨존 및 일반도로에 대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 등을 확대하고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및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합동 안전문화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형섭 광명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안전한 교통환경,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윤용민기자



경상북도 경주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A large graphic with a traditional Korean tower and text promoting the bid for the 2025 APEC summit.

전북도,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실태 집중 단속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등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가 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뒤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

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임·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남출기자

인천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27,530건 안전취약요소 적발

인천광역시시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27,530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4억여 원 부과와 시정명령·현장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10개 구·군, 민간단체 등 303개 기관 3,113명이 참여해 관내 260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27,53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했다.

분야별로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3,405건 적발해 과태료 3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383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는데,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의 업소 60개소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195개소를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옥외광고협회, 클린봉사단 등 민간단체와 합동

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철거활동을 전개했다. 21,410건을 적발해 과태료 7천2백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계도 등의 조치를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는 관내 키즈카페 130개소 및 초등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270개소를 점검했으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시설 설비기준 적합여부를 집중점검해 64건을 계도 조치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충북도 청남대 대통령 침실, 개방20년을 맞아 전면 개방

첫 주인공 독립운동가 후손, 단양 시루섬 기적 주인공, 대청호 수몰 실향민, 청남대 마지막 경비 대대장 등 선정

충북도는 청남대 개방 20주년을 맞이하여 본관(대통령 별장) 내 대통령 침실을 제외한 모든 침실을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2003년 4월 18일 개방 이후 20주년을 맞이한 청남대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별빛야행, 힐링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10명으로 충북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단양 시루섬의 기적 주인공, 대청호 수몰 실향민, 충주지역 고향사랑 기부제 최고액 1호 기부자, 청남대의 마지막 경비대 대대장을 첫 주인공으로 선정하여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행사프로그램으로는 앙상블 공연팀의 소규모 클래식 연주와 청남대의 역사와 미래비전을 담은 '샌드아트공연', 2003년 개방 당시 노무현 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상징적인 이양기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이양키 퍼포먼스' 등을 열었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첫 주인공들에게는 대통령 별장에서의 숙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문의된 마집에서 공수한 만찬 및 청남대 별빛야행 등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했다.



청남대는 이번 개방행사를 위해 본관 1층 손님용 침실 5곳을 새롭게 단장하여 숙박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남대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 예정이다"라며 "청남대가 기존 전시 및 행사 등 관광 측면에서 탈피해 숙박, 힐링체험, 역사교육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개발하여 청남대를 전국을 대표하는 힐링 치유의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념행사에 참석한 초청대상자는 "청남대의 첫 숙박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크게 기쁘다"며 "청남대가 진정한 개방으로 더욱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정화기자

아산시, 정책특보와 연예인이 함께하는 '성웅 이순신 축제' 홍보

아산시가 오는 21일 도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종합터미널 일원에서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함께하는 '성웅 이순신 축제' 캠페인을 펼친다.

어느새 10일 앞으로 다가온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홍보 행사는 정책 특별보좌관들의 자발적인 구상과 기획으로 마련됐다.

여기에 세계적 한복디자이너인 목은정 K-컬처 분야 특보와의 인연으로 대표곡 '자기야'의 가수 박주희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최정훈이 홍보 행사에 함께하게 됐다.

두 가수는 "성웅 이순신의 정신을 기리는 '아산의 12척 배 중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라며 동참 의지를 밝혔다.

박주희는 "제57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축하공연 무대를 함께 했으면

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이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최정훈은 "부친 고향이 세종이고 증조부 증조모 등 묘소도 세종에 있어 명절 때마다 자주 지나치다 보니 아산이 친근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단 간사 김기창 복지 분야 특보는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산을 대표하는 홍보요원으로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관 주도가 아닌 특보단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획됐다는데 이번 캠페인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특보단에 감사의 뜻과 함께 홍보캠페인 동참 의사를 전했다.

김원호기자

보은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

보은군은 6월 16일까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변 위험시설 조기 발굴과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과 주민 개개인이 함께 생활 속 안전을 진단하고 각종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공동주택 34개소 △전통시장 2개소 △문화재 3개소 △도로교량 3개소 △야영장 2개소 △레저스포츠 시설 3개소 △체육시설 5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 △농촌관광시설 2개소 △가스시설 15개소 △자전거 도로 27개소 △산사태취약지역 7개소 등 모두 127개소에서 진행된다.

군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토목·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서

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에 나서는 등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안전점검 추진 기간 중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주민들이 직접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는 등 군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점검 문화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심문영 안전건설과장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인도 붕괴사고 등 인론으로 전례없는 각종 사고로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보여주시기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추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정화기자

제14회 옥천참웃축제 개최

제14회 옥천참웃축제가 오는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옥천향수공원(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25 일원)에서 개최된다.

2008년 제1회 옥천참웃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14회를 맞은 옥천참웃축제는 전국 유일 참웃 축제로 웃 애호가들에게 최상의 품질로 인정받아 해마다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다.

웃순 판매는 옥천군산림조합과 옥천참웃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생식용 웃순 1kg 판매가격은 23,000원으로 축제장 현장 판매와 사전 전화주문(옥천군산림조합 043-732-7001, 옥천참웃영농조합법인 043-732-0158)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옥천군은 2005년 전국 최초로 웃산업특구로 지정받아 매년 성황리에 축제를 개최했다. 옥천군은 봄철 특산물 시기에만 웃순 채취가 가능한 만큼 매년 웃 재배 농가 등을 돕기 위해 옥천군산림조합, 옥천참웃영농조합법인과 손을 맞잡고 다각적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중에는 신선한 생식용 웃순 1kg를 1,000원 저렴한 2만2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웃순을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웃술, 웃물 등 웃가공제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활발히 운영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웃재배 농가 소득증대 및 옥천웃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해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옥천 참웃에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충북도 옥천 **제14회 옥천참웃축제**

2023. 4. 29. (토) - 30. (일) **2일간**
 옥천향수공원 일원(옥천읍 삼양리 125)
 * 개막식: 2023. 4. 29. (토) 17:00

최적의 자원환경! 최고의 품질! 자연이 내린 신비로운 선물! **옥천참웃**

종류	수량	종류	수량	가격	비고
옥천군산림조합	732-7001	웃순	1kg	23,000원	22,000원
		웃순	1kg	23,000원	22,000원
옥천참웃영농조합법인	732-0158 / 732-0159	웃가공	1박스	10,000원	9,000원
		웃가공	1박스	15,000원	14,000원
		웃순	1kg	15,000원	14,000원

주최: 옥천군
 주관: 옥천참웃영농조합법인
 후원: 옥천(농가공시) 판매, 옥천시(관광), 옥천군(농업), 옥천군(농업) 산림과 (043) 730-3594

원주시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SA)' 등급

도내 유일 최우수(SA) 등급 부여

원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3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종합평가 90점 이상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21곳이며, 강원도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원주시가 유일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갈충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 일치도 분야 등 4개 분야로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 평가했다.

특히, 원주시는 민선 8기 공약평가단 위촉, 공약 선포식, 매니페스토 특강 등을 통하여 공약의 집행상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민주성·투명



성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평가에서 도내 유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시민들의 믿음과 기대를 충족하기 위

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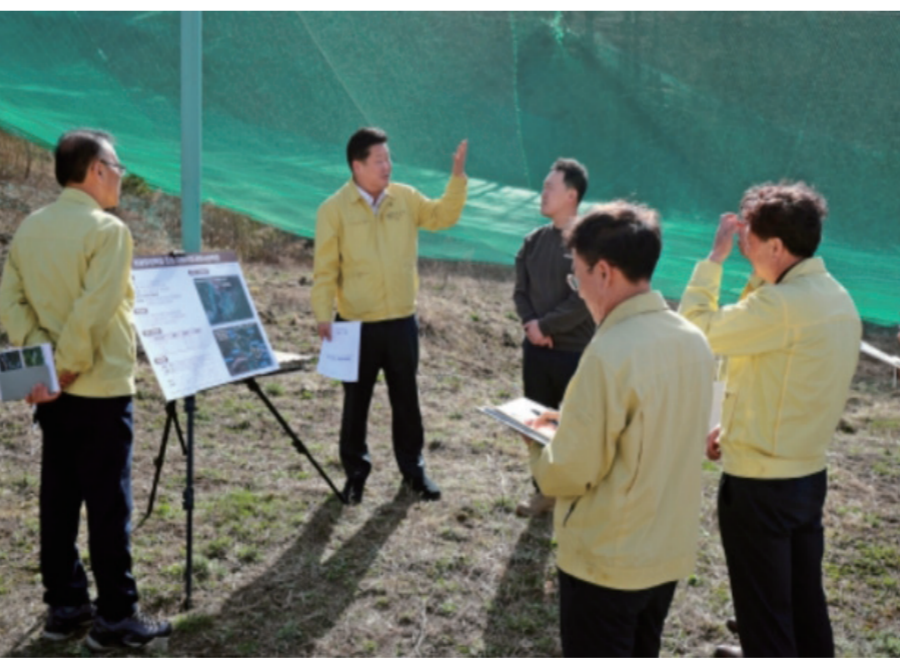
태백시, 공공투자 사업장 등 4개소 현장점검 실시

태백시는 지난 12일과 14일 2023년도 공공투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공공투자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일차(4.12.)에 황지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공사 현장과 관광휴양목장 조성사업 대장지를 현장 점검하고, 2일차(4.14.)에는 장성지역의 도시 활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ECO JOB CITY 태백 도시재생사업과 장성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황지권 현장점검을 통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트레킹코스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방문객들이 당일이 아닌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장성권 현장점검에서는 2024년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위기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동 일대에 시설관리공단 및 시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제



반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여 장성지역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매주 금요일을 민원현장 방문 및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현장 곳곳을 돌러보고 시민 가까이에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유상근기자

동해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동해시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덜고 쉽고 편리하게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여성농업인에게 이동식 충전 분무기 및 다용도 작업대 구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55만원(보조 44만원, 자부담 11만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시간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동식 분무기는 충전식으로 바뀌기 달려있어 이동이 용이한 여성친화형 제품이며, 다용도 작업대는 농작물의 재배·수확·선별·포장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허리를 펴고 일할 수 있어 근골격계 통증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신청기준은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이며, 농촌지역거주, 전업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22년 미래농업교육원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수료자는 우선 선정 된다.

단, 2021~2022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 사업 지원자 또는 선정 후 포기한자 및 기타 부당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5월 12일까지 동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의 고령화 및 반복적인 작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편의장비 보급을 통해 여성농업인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지역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김해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 거점도시 도약

2025년까지 전국 최초 전자약·디지털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김해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23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전자약·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자약·디지털치료기기 분야 처음으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향후 국내 전자약 연구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연계, 수도권과 지역 대형병원-기업 연계 같은 네트워크 강화로 미래 의료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의생명 거점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약은 뇌와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를 말하며 디지털치료기기는 환자의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는 먹는 약의 화학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비대면 원격 진료의 근거가 되는 의료 분야로서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120억원)과 함께 첨단 의료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7억원을 포함, 총 7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한국전기연구원, 경상대병원이 참여해 전국 최초로 전자약·디지털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실용화지원센터 건립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실용화 장비 및 설비(GMP) 시설 구축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실용화 지원 원스톱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약·디지털치료기기 거점 조성이 완료되면,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김해시가 디지털케어 분야에서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도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이달희 경제부지사, 경북 과학산업 육성 위한 소통의 시간 가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등 지역 R&D기관 차례로 방문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7일 로봇, 반도체 등 지역 과학산업 육성 및 현안사업 논의를 위해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로봇, 반도체 등 경북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격려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로봇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에서 이달희 부지사는 경북에는 다양한 로봇기업이 위치하고 있다면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안전·농업·물류 분야 로봇 기술개발을 활용한 산업화를 위해 경북도에서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이 선도적으로 이뤄져야 됨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수중·농업 분야에 활발한 연구개발과 함께 로봇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역량과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난 2월 MWC(Mobile World Congress) 2023에서 강조된 무인경제(無人經濟)의 시대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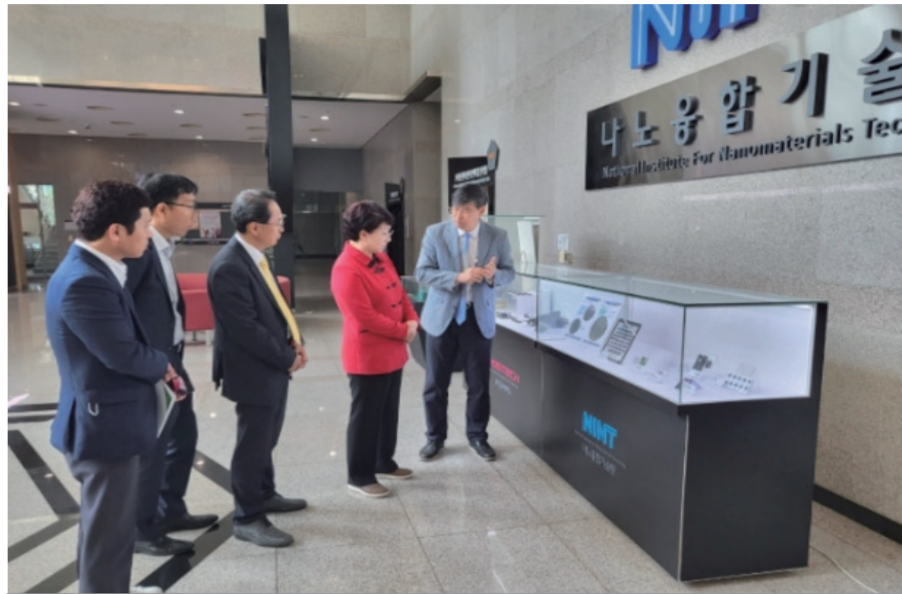
에 로봇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함께 공감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나노융합기술원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에 나노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내 나노기술 발전 방안과 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전력반도체 소재·기술 개발, 미래인재양성사업 등 경북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설명했다.

또 90% 정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강점인 전자산업, 자동차 부품산업과 연계한 시스템 반도체로의 구조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와이드밴드갭(WBG)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로봇,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달희부지사 나노융합기술원 방문

기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오늘

함께한 연구원들의 역량을 기대하며, 경북의 과학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충남도,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기업 유치 나선다

김태홍 지사, 17일부터 '외자유치 출장'...4개 기업과 협약상당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부장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7~22일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출국 첫 날인 17일 뉴욕에 도착하는 김 지사는 현지 한인 언론 기자, 미 동부 충청향우회 임원 및 회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민선8기 협천충남을 소개한다.

방미 이틀째인 18일에는 뉴욕주에 위치한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업체, 코네티컷주에 있는 산업용 가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을 연이어 찾아 투자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협약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두 기업에서 유치할 외자유치 규모는 1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경기 위축에 따라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협약에 이어서는 추후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한 발판을 놓는 활동을 편다.

미국 출장 사흘째인 19일, 김 지사는 메사추세츠주 반도체 소재 물질 생산 기업을 찾아 상담을 갖는다.

20일에는 뉴욕주로 돌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투자 상담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 기업은 국내에 대규모 투자 방안을 모색, 김 지사는 도내 투자 유치 성사를 위해 기업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충남 세일즈' 활동 이후 김 지사는 한국 언론 뉴욕 주재 특파원과 간담회 등을 갖고, 이튿날인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윤주영 도 투자통상정책관은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망 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마련하는 등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이어 "우리나라도 미국 칩스법에 대응한 'K-칩스법'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의 미국 수출 현상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선투자-시장 선점-이익 창출 등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치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또 "이번 협약 및 상담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충주시, '국제의약품 바이오산업전 2023' 참가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중심 유망 바이오기업 유치 목표



충주시는 오는 21일까지 고양 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2023' 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은 25개국 832개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3,000개 부스와 7개 전문관을 통해 의약품·바이오 분야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생산이나 공급의 연속체 과정)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다.

시는 박람회에서 유수의 바이오기업과 관객을 대상으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단지과 충주 바이오헬스 바이오의약품 기업인 코로롱바이오의 기술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국가산단단지와 충주의 유망 바이오기업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산단단지에 유망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단지는 대소원전 본리와 완으로 일원에 총사업비 5,662억 원을 투입해 약 68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김원호/기자

대구광역시 두 번째 ABB전용펀드, ABB벤처펀드 120억 원 조성

대구광역시-이수창업투자-에코프로파트너스-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업무협약식 개최

대구광역시는 4월 17일, 산격동 청사에서 이수창업투자, 에코프로파트너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함께 대구 ABB산업 육성을 위한 'ABB벤처펀드 조성·운용'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효율적인 ABB벤처펀드 조성 및 운용과 ABB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투자생태계 기반을 형성하고자 대구광역시, 펀드 운용사 및 관계기관 간 상호 업무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ABB벤처펀드'(120억 원 규모)는 2022년 하반기에 조성된 'ABB성장펀드'(234억 원 규모)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에 조성되는 ABB산업 전용 펀드이다. 본 펀드는 대구광역시가 창투자(VC) 연계형 펀드로 기획한 것으로 지난 3월 공모로 운용사를 선정했는데, 총 4개사가 응모하여 최종 '이수창업투자'와 '에코프로파트너스' 공동 운용사로 선정됐다.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들 운용사는 대구에 각각 지점을 개소하여

지역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역외 유망 ABB기업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펀드 출자자인 이수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 차원에서 지역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사업, 지역 ABB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등 다양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지역 ABB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펀드 출자금은 대구광역시 40억원,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이수페타시스 29억 원, 이차전지 배터리 사업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29억 원, 운용사 등 22억 원이 각각 출자된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4년 분담으로 출자할 계획이며, 대구광역시가 출자한 40억 원의 200%인 80억 원이 대구 소재 ABB 중소·벤처기업 10여 개사에 투자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에 ABB산업 전용펀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



년까지 총 1천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2023년도에 1~2개 정도 신규펀드를 더 추가 조성해 2023년 한 해에 총 400억 원 정도 규모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펀드 조성의 점진적 확대는 수도권에 80% 이상 집중돼 있는 벤처 투자금, 열악한 지역 투자 인프라에다 고금리, 고물가의 경기 불황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ABB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ABB 전용펀드의 지속적인 확대 조성을 통해 지역 ABB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삼성전자,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술 전시회서 '삼성 헬스 스택' 공개

삼성전자는 17일~21일 5일간(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23 HIMSS 글로벌 헬스 컨퍼런스 & 전시회(Global Health Conference & Exhibition)'에 참가해 '삼성 헬스 스택(Samsung Health Stack) 1.0' 버전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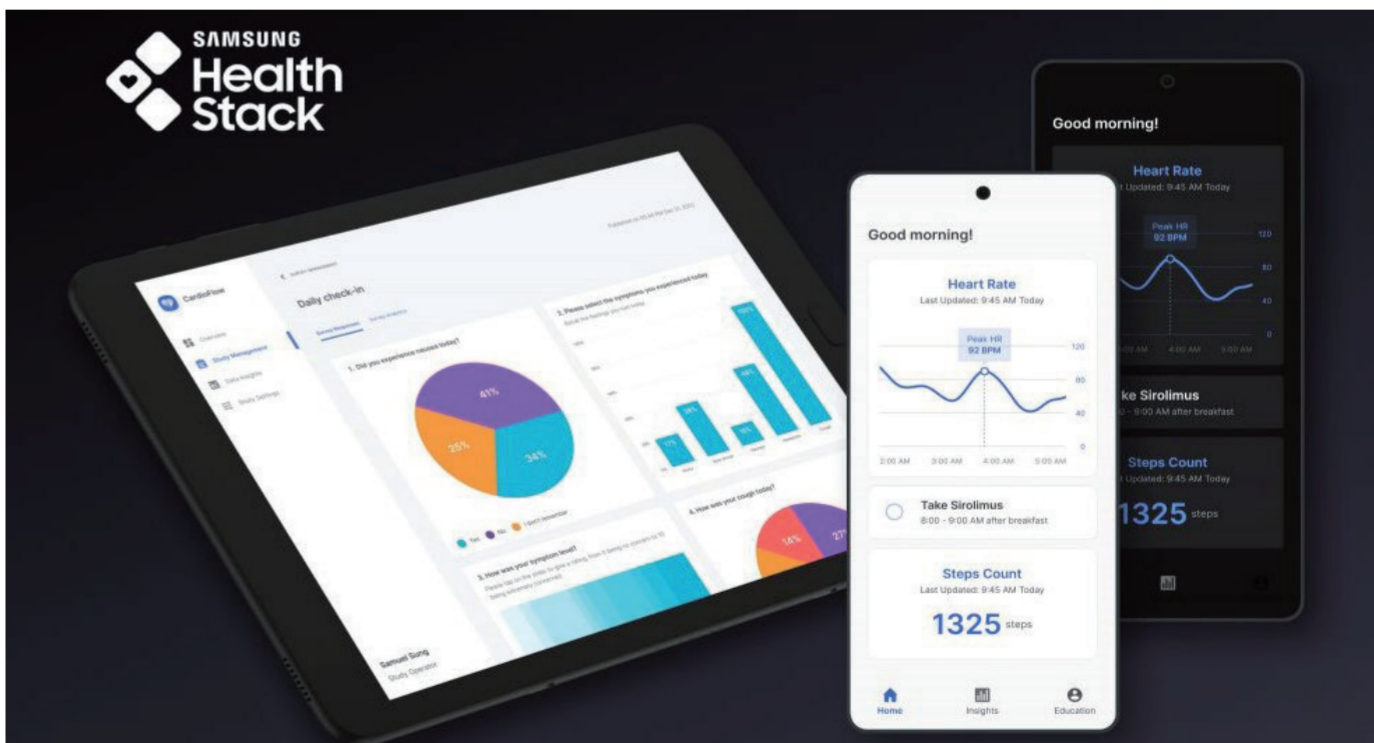
이 행사는 '미국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기술 행사로 올해는 전 세계에서 천여 개 기업,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삼성 헬스 스택' 1.0 버전은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OS 기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 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공식 공개는 6월이지만 삼성전자가 전시 부스에서 '삼성 헬스 스택'을 활용해 제작된 모바일 앱과 연구 관리 도구들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나 의류서비스 기관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솔루션 개발 ▲생체지표 연구 등에 '삼성 헬스 스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헬스케어 연구가 활발해졌지만, 디지털 헬스 관련 앱이나 솔루션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R&D 장벽



▲'2023 HIMSS 글로벌 헬스 컨퍼런스 &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인 '삼성 헬스 스택' 1.0 버전

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삼성 헬스 스택'을 활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Software Development Kit)'가 기능별로 모듈화되어 있어 솔루션이나 앱을 개발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엔드 투 엔드 솔루션(end-to-end solution)'을 제공하고, 높은 보안성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삼성 헬스 스택'의

장점이다.

'삼성 헬스 스택' 개발을 담당한 이윤수 삼성리서치* 데이터인텔리전스(Data Intelligence)팀장은 "앞으로 삼성 헬스 스택을 활용한 협업을 확대해 글로벌 디지털 헬스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분야의 개발자들이 삼성 헬스 스택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개발 조직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SDC(Samsung Developer

Conference) 2022'에서 '삼성 헬스 스택' 알파 버전을 공개했으며, 이후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해 완성도를 높인 베타 버전을 지난 3월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인솔(팔창)을 활용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솔티드(SALTED)', 유방암 항암제 부작용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한 '올라운드닥터스(ALL ROUND DOCTORS)' 등 국내외 헬스케어 기업들과 '삼성 헬스 스택'을 활용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남원시, 고향사랑기부로 행복한 미소가 절로!

장영복 재인천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 남원시 300만원 쾌척!

장영복(우측) 재인천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또 하나의 고액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영복부회장은 지난 4월6일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남원시에 기부했다.



▲ 장영복(우측) 재인천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

남원시 주생면 정충마을이 고향인 장영복 부회장은 재인천주생향우회장도 역임 중에 있으며, 평소 고향사랑이 남달라 남원시와 주생면에 연례적으로 기부를 꾸준히 해와 지역주민들에게 마음씨가 따뜻하고 존경을 받는 향우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20년 남원시민의 장 애향장을 수상하여 그 선행이 널리 퍼져 나갔다.

장영복 부회장은 "고향 남원은 항상 제 마음속에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잡고 있으며, 금년 고향사랑기부시행으로 남원발전을 위하여 기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장영복 부회장님께서 매년 고향을 잊지 않고 기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향우

들의 지속적인 기부가 남원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도록 기금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남출/기자

경북농업기술원, 로봇 농업 시대 앞서나간다

디지로그와 농업로봇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7일 회의실에서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서현권 디지로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의 첨단 산업화, 로봇 농업 시대 구현을 위한 환경감시, 병해충 방제, 수확 로봇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로봇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농장 내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로봇이 인공지능(AI) 방제, 수확작업 등을 수행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농가소득을 올린다. 또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재배 농업인들에게 디지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25세~54세)비중은 약 300만 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먼저, 디지로그와 농업로봇 적용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추진기로 하고 경북도에서 개발한 딸기 신품종 '알타킹'의 수확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동남아에서 '알타킹' 딸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수출이 급증하면서, 타 품종과 달리 60% 정도 익었을 때 수확해 수출이 가능하므로 농업로봇을 이용한 수확용 자동화 기술 개



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로봇을 이용해 농장 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병해충 및 생육 감시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손을 크게 줄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스타트업 디지로그 서현권 대표는 세계 1위 농업대학으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네덜란드 농식품로봇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초로봇, 파프리카 수확로봇 등을 개발한 국내 최고의 농업로봇 및 농업 AI전문가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농업 인공지능 대회에 국내 대표로 참가해 3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로봇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디지로그와 공동연구 개발로 국내 농업여건에 적합한 인공지능 로봇 솔루션을 제공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한국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미래 농업 리더를 키울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농업로봇 기술이 영농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 남구체육회 지도교안 부문 장려상 수상

남구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김혜정 어르신지도자의 소프트테니스 종목이 지도교안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가에서 2021년도 전국3위, 2022년도 전국1위를 연속 수상하며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체육회라는 명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정춘식 남구체육회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준진/기자

안산시, 제14회 다문화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안산시는 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에게 수여하는 '제14회 안산시 다문화 시민대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구청장이나 동장, 기업체 및 외국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다문화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외국인노동자 최치잔느 ▲결혼이민자 김원숙 ▲다문화사회통합 공로 한희정 ▲문화 기구찌게이고 ▲지역경제 부문 박금화 씨 등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시장 명의의 상패가 주어지며, 시상식은 세계인의 날 주간(5월20일~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사회통합에 노력해온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산시 발전에 기여한 많은 외국인노동자, 결혼 이민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강릉시 취약계층위해 이동푸드마켓이 찾아갑니다



월 1회 지역 순회하며 운영

사회복지법인 강릉중앙재단 강원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와 강릉자유푸드뱅크(대표 김진구)는 지역을 순회하며 복지 취약계층에 기부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강릉동에서 첫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했고 최근 내곡동 및 회산동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00가

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용자가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동푸드마켓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라면, 식자재 등의 식품류부터 샴푸, 세제 등 각종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인식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강릉자유푸드뱅크는 지리적인 이유

로 식품 등의 제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월 1회 지역을 순회하며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구 대표는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됨이 없이 모두에게 나눔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이동푸드마켓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킬 예정이며, 지역 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원/기자

미래를 바꾸는 힘! 고향

제35회

고양행주문화제

2023.5.19.금 ~ 21.일 3일간

행주산성역사공원, 행주산성 일원

<p>드른불꽃쇼 "그날의 불"</p> <p>5. 20.토 20:30</p> <p>행주산성역사공원 수상무대</p>	<p>행주대첩 박 터트리기 대회</p> <p>5. 20.토 ~ 21.일</p> <p>행주산성역사공원 내 투석전 경기장</p>	<p>뮤지컬 "행주대첩"</p> <p>5. 21.일 19:00</p> <p>행주산성역사공원 메인무대</p>	<p>수상 불꽃놀이</p> <p>5. 20.토 ~ 21.일 20:50</p> <p>행주산성역사공원 한강수상</p>
---	--	--	--

주최 | 고양특례시 주관 | 고양문화재단 문의 | 1577-7766 www.artgy.or.kr www.hjfestival.or.kr

화순 “고인돌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다양한 선사체험 선보여

22일부터 축제장 내 선사인로봇 체험부스 등 운영



▲ 선사시대 복장을 한 축제장과, 참여객들이 고인돌을 끌고 있다.

화순군은 2023 화순 고인돌 축제를 오는 21~30일까지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약 30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인돌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은 ‘고인돌 축조(돌쌓기) 체험’으로 선사시대 분장을 한 배우들이 상황을 펼쳐지며 내방객의 돌쌓기를 유도하고, 주무대로 함께 퍼레이드하는 행사이다.

‘메타버스 선사수렵채집체험’은 활모양의 메타버스 아처에 스마트폰을 부착하면 실감 콘텐츠가 화면에 나와 활을 당겨 사냥하는 수렵 채집체험이다.

세계거석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선사인로봇 체험’은 돌망치와 방패를 든 선사인 로봇 로드쇼, 로봇 탑승 체험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고, 인간과 로봇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밖에, 내방객들은 선사인 복장과 분장을 한 ‘미스티 선사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할 수 있고, ‘고인돌 명사 수 대회’에 참가하여, 숨겨진 사격 실력을 뽐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화순 고인돌 축제는 교과서로 막연하게 익히던 선사시대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며, “축제에 참가해 선사시대 문화의 색다른 체험과 재미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경기도, 지역특화컨벤션 육성 공모사업 결과.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등 3개 선정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육성 공모사업 고양·수원·시흥 3개시군 컨벤션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역 기반 산업을 주제로 개최하는 컨벤션(국제회의·컨퍼런스)을 국제적인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2023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육성사업’ 공모 결과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등 3개 행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행사 주제와 지역특화산업 연계성, 국제적인 성장 가능성, 행사장 국제기준 적합성 등을 고려해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고양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시흥 한국소재 표면 기술 컨퍼런스 등 3개 행사를 최종 선정했다.

공모 선정된 행사당 최대 6천500만원의 개최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원금은 대관료, 국내외 홍보비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지원예산의 50% 이상을 경기도 소재 업체에 활용하도록 설계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했다.

또한 학계, 전문 국제회의 기획자로 구성된 자문단이 행사의 전반적인 진단과 더불어 행사의 국제화, 지역산업 연계 기반 관광·경제 활성화 등 국제적인 컨벤션 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선정된 행사를 보면 고양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고양 소노감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7회째이며, ‘아시아 최초 마이스 목적지(Destination·마이스를 위해 방문) 관련 국제회의’를 진



행한다. 세계 도시마케팅 및 마이스 업계 종사자 35개국 660여 명이 참가하며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이벤트 발전 포럼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유스 챌린지 공모전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은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기구 등 국제기구 인사와 전문가들의 포럼과 패널토론이 진행되며 ‘세계유산과 예술·영화·사람·기후 변화·평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중과 전문가 포럼을 나눠 진행한다. 행사와 동시에 행리단길 팝업스토어, 세계유산 즐기기 투어 등 다양한 프로

그램들이 예정되며 올해 21개국 약 6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 소재 표면 기술 컨퍼런스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시흥 서울대 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가 5회째로 소재 표면 기술의 4개 산업인 코팅·접착·도금·필름 관련 관계자 5개국 약 360명이 참가하고 4개 세션의 전문기술 세미나로 구성된다. 또한 업계 기술 전시 출품 등 전시회를 구성해 행사 참석자들과의 비즈니스 교류회도 이뤄진다. 관련 기업인과 오프라인 해외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시찰을 포함한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편 경기도는 국제적인 마이스 육성을 통한 경제·문화·사회적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산업·로봇산업 등 경기도 유망산업 및 시·군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된 행사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내년에는 지역특화 컨벤션의 선정 건수를 확대 지원에 나갈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영양군, 지친 하루 명품 영양 산나물로 쉬어주세요

일월산 청정 산나물채취체험행사 개최 예정

영양군은 5월 12일에서 14일까지 동해의 일출과 월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일월산 일대에서 영양 산나물채취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나물채취체험행사는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타지역 도시주민 210명에게 명품 영양 산나물을 알리기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

영양군 산림복지과 산지이용팀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영양 산나물은 일월산의 기운을 받

아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산나물로서 그 자리에서 뜯어서 맛을 보아도 될 만큼 청정 웰빙의 산나물이다.

영양군은 산나물채취체험행사를 위해 영양의 좋은 기운을 담은 산나물이 자라는 일월산 일대를 특별히 관리해 오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맛과 향이 뛰어난 전국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자연의 선물인 명품 영양 산나물을 마음껏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가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 18회
영양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산나물축제

기간
5월 11일(목)~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UFTI 영양지역관광재단

강원도, 제4회 멸종위기 동·식물 축제(페스티벌) 개최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 체험, 만들기 무료행사로 열려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은 2023. 4. 21 ~ 23까지, “제4회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붉은점모시나비, 남생이, 금개구리, 나도퐁란 등 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과 별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반딧불이 반딧불이 애벌레, 쏘지 않는 벌 뒤영벌 등을 직접 보고 만져 볼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희귀 식물 세밀화, 백두대간 자생식물 종자와 꽃가루 Art-SEM 사진, 멸종위기식물 사진 등의 전시와 함께 AR(증강현실)로 만나는 멸종위기 동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 비눗방울 공연, 자연재료를 활용한 만들기, 야생

화 심기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조성을 위해 엑스포 마스코트(삭이, 나리, 그루, 차차)와의 기념촬영, 홍보물 배부, 홍보영상 시연 등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동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에 보기 힘든 멸종위기 동식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에 대해 어린 자녀들과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세계 산림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제4회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함께 걷는 작은 발걸음
2023. 04. 21.(금)~04. 23.(일)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일원
강원도 춘천군 북평면 생태공원길 319

부대행사(무료)

- ▶ **전시** 새(종교상징)를 만드는 ‘멸종위기 동물, 식재료’ 만들기(다기, 동물(단, 토끼) 먹이주기, 페이스 페인팅, 전통놀이 체험)
- ▶ **연말** 수형로봇, 달그늘 만들기, 손수건 자르기, 야생화 심기, 꽃말 카드, 카탈 만들기, 원주 만들기, 주머니 만들기
- ▶ **공연** 다채로운 비노연습소, 커다란 배먹로 공연
- ▶ **강사** 생이하는 멸종위기 동·식물, 멸종위기동물 사진, 새알과 낱사, Art-SEM 사진
- ▶ **기타** 계절의 선물(스프링 향연) 워크숍, 다채로운(야생)
- ▶ **문의** 춘천공관, 춘천-무지, 춘천 등

※최소 1명만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ecopark.gwd.go.kr

2023 무안 도리포 유채꽃 축제 5천 명 인파 몰려... 새로운 봄꽃 관광명소로 도약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송계 해변 일원에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봄, 바다와 유채꽃, 그리고 섬’을 주제로 열린 ‘2023 무안 도리포 유채꽃 축제’가 5천여 명의 대규모 인파가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도리포 유채경관단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축제는 개막식 등 격식을 갖춘 의전행사를 과감히 배제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음악과 꽃, 해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축제 형태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해제면에서는 이번 축제를 위해 경관단지 내에 포토존 2개소와 탐방로를 조성하고 차량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7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더 풍성하고 편리한 축제가 되도록 기반시설 보강에 힘쓰는 한편, 해변거리공연, 마술쇼, 풍선아트, 가족 신문 체험, 어린이 놀이터, 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축제장에서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실천 ‘친환경 에코폴로깅쓰담 산책’ 캠페인을 펼쳐 관광객의 사회공헌활동 동참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먹거리 장터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주도형 축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는 평도 함께 받고 있다.

축제가 개최된 해제 도리포 송계마을 유채 경관단지는 10.7ha 규모로 큰 면적은 아니지만 송계 송림속 해변에 위치하여 유채꽃과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타 지역의 유채단지과 차별화된 고즈넉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비교 불가의 강점이다.

지난 2021년 걷고 싶은 전남 숲길에 선정된 솔바람길(1km)과 연결되어 산책을 즐기면서 일상으로 부터의 쉼을 갖기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이번 축제 이후 더욱 입소문이 나 새로운 봄꽃 관광명소 1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광남/기자



제14회 2023 영주 한국선비 문화축제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기간 | 2023. 5. 5. (금) - 7. (일)

장소 |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및 서천둔치 일원

